

2021, 희망  씨

2021

2021, 희망  씨

'2021 희망씨'는 2021 희망제작소 활동보고서로 제작된 인터뷰집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희망제작소의 연구 및 활동에 함께 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싱크앤팩크 Think & Do Tank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목차 contents

여는 말

10

2021 희망제작소는

연구와 활동

후원

- 후원회원 프로그램
- 후원회원 인터뷰
- 참 고맙습니다

살림살이

12

14

32

67

70

72

74

90

#지역차별 #언어

- 양산에서 부산, 다시 서울로, 김민지 · 이현정 씨
- 안산에서 시흥, 다시 서울로, 오의석 씨
- 창원에서 서울, 그리고 지리산으로, 보석 씨
- 포천에서 서울로, 이해란 씨

#지역공동체 #시민참여

- 전북 남원에서 청소년 진로 탐색에 힘쓴 최정호 씨
- 서울 종로에서 시니어 리빙랩을 꾸린 박경숙 · 서영선 · 이근희 · 흥민선 씨

2021 희망, ()씨는

들어가기: 소멸 대신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지역소멸 #지역일자리

- 지역소멸 속 희망의 씨앗을 찾는 임주환 씨
- 청년과 지역 일자리를 연구하는 양승훈 씨

#청년 #지역살이

- 전남 신안에서 청년마을을 운영한 박현정 씨
- 경기 화성에서 기후위기의 대안을 찾는 이시원 씨
- 충남 금산에서 지역과 문화예술을 결합하는 조혁민 씨
- 경북 문경에서 한옥 카페를 차린 도원우 씨
- 경북 상주에서 청년 농부로 살아가는 이정원 씨

닫는 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하는 법

희망의 별

희망제작소 사람들

130

162

182

184

186

208

여는 말

시민 한 사람의 힘을 떠올리며

지난해 연말 후원회원 증액 및 신규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의 성원 덕분에 희망제작소의 가치를 다시금 떠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고, 막막한 현실을 견뎌야 하는데도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곁에서 따뜻한 격려와 후원으로 묵묵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창립 당시 국내 사회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아이디어와 행동에 ‘희망’을 발견했던 희망제작소의 초심을 잊지 말라는 당부로 느껴집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발견해 대안을 찾고,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지역소멸, 지역일자리, 지역혁신, 정책혁신, 주민참여, 생태적 전환 등의 분야에 천착해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벌였습니다.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깊이 뿌리내린 실천을 목표로 활동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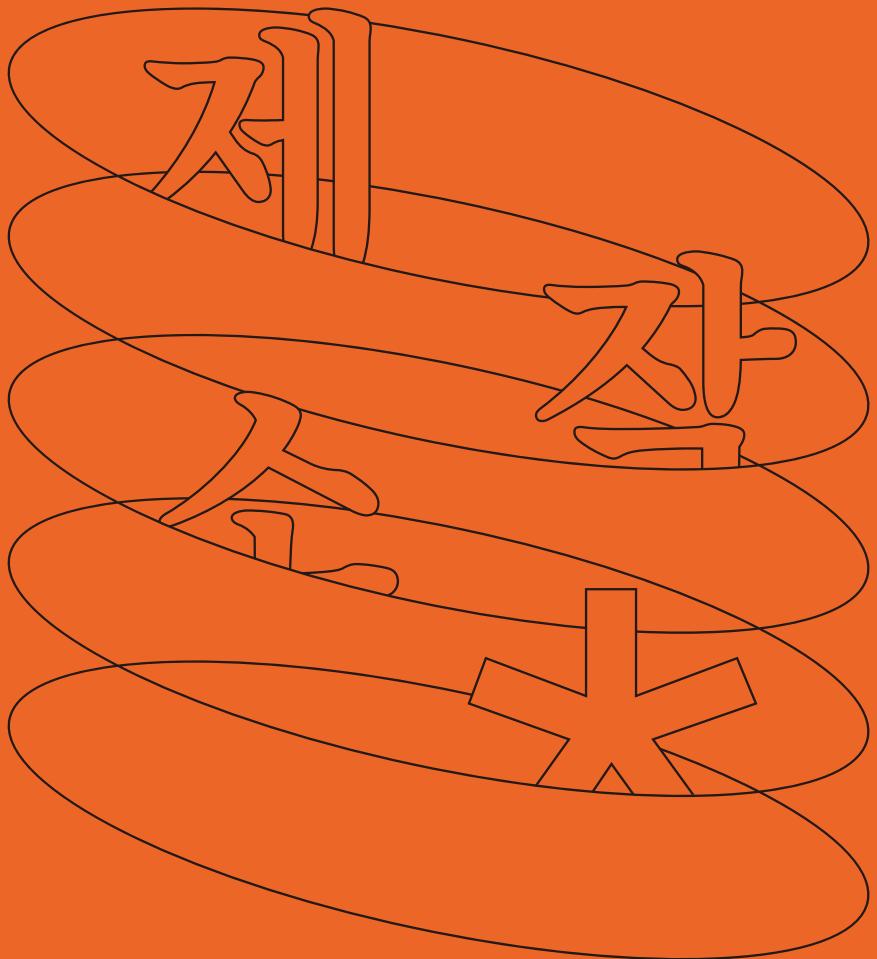
만큼 ‘시민의 힘’을 떠올립니다. 시민이 성장하고,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올해도 시민과 후원회원의 든든한 지지를 뒷받침 삼아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이사장
정지강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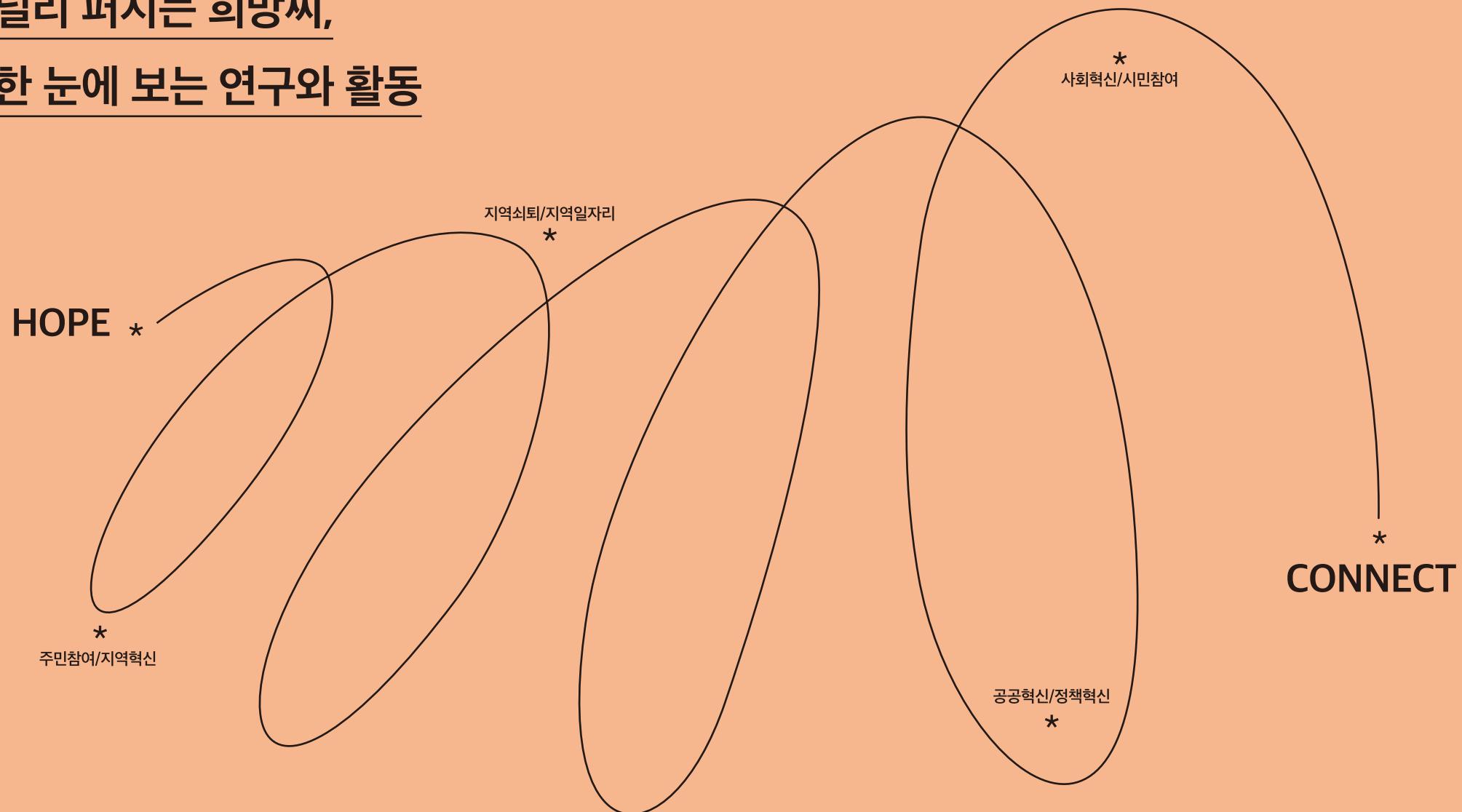
2021 희망제작소는



#연구 #활동 #후원 #살림살이

널리 퍼지는 희망씨,

한 눈에 보는 연구와 활동



희망제작소는 2021년 한 해 어떤 연구와 활동을 진행했을까요. 희망제작소는 #주민참여/지역혁신, #지역쇠토/지역일자리, #공공혁신/정책혁신, #사회혁신/시민참여 분야의 연구 및 활동을 펼쳤습니다. 4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 및 활동을 소개합니다.

#주민참여

시민 역량을 키우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행을
추진합니다. 공동체 모델, 주민자치회, 숙의공론장 활성화 연구부터
시민주도 도시재생 연구사업을 진행합니다.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을 통한 주민의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

2021.03.~2021.05.

은평구의 마을공동체 정책으로 밸굴되고 성장한 주민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참여 경험이 주민참여, 사회적경제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성장, 지속 가능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참여 주민의 성장과 확대, 지역사회활동 촉진 방안을 제안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2021.05.~2021.10.

성남시의 보다 나은 마을공동체 활동 촉진과 확산,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선행 연구 및 국내외 마을공동체 제도와 정책, 주요사례 분석과 성남시 마을공동체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남시 마을공동체 정책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핵심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는 약 300여 명의 설문조사와 주요 그룹 인터뷰를 통해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방안과 발전방안, 핵심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안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성과 분석 및 매뉴얼 구축 연구

2021.07.~2021.12.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피해자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최초 특별재난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1단계)을 운영했습니다. 1단계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최초의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성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20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모델화 및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안산형 공동체 회복 특성화 지표 모델, 공동체 회복 가이드라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평가 지표 등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5개 영역별(△지속자립 기반 마련, △이해와 포용성 증진, △대외적 가치 확산, △미래세대 성장지원, △사회적 갈등 치유)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해 지역 공동체 회복 기여도와 향후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사업의 개선점 및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소멸

지역쇠퇴를 막기 위한 지역 경제·문화 활성화의 길을 찾습니다.

#지역일자리

지역 단위 종합발전계획부터 좋은 로컬 일자리 연구와 지역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경상북도 정책역량 아카데미 및 수행기관 역량강화 연구

2021.01.01.~2021.12.31.

지역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및 도내 기초지방정부, 사업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3회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일자리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그 과정에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당사자와 함께 논의하는 학습·토론의 장입니다. 광역지방정부인 경상북도가 가진 고민과 기초지방정부, 현장의 고민을 기초자치단체장부터 각 분야 전문가, 실무자가 함께 나누는 포럼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이 가진 전환에 대한 고민을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경상북도 기반 신규 혁신 일자리사업 개발 연구

2021.05.~2021.12.

기후위기와 신산업으로의 전환에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상북도의 산업지형을 분석하고,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고용·일자리 정책 자문단과 함께 모색했습니다. 정책 자문 및 좌담회를 통해 핵심 기반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권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해 신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신성장 전략은 다년도 산업 및 혁신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전기차 전환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 연구지원, 고용복지체계 및 상생협치 전략 제안입니다.

지역소멸 기획기사

2021.07.~2021.09.

지역쇠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지역의 혁신 사례를 발굴해 한겨레와 함께 연재했습니다. 지역의 혁신사례, 희망사례는 5가지 유형(산학협력형, 농업혁신형, 지역자원활용형, 에너지전환형, 신산업유치형 등)으로 구분해 경남 거창의 승강기밸리, 완주군의 로컬푸드, 충북 영동의 포도와인산업, 전남 신안의 친환경 에너지, 강원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을 지역혁신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로컬다이버

2021.09.~2022.05.

지역을 떠나는 청년, 줄어드는 지역인구, 지방소멸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모이는 청년이 아닌 지역으로 간 청년들의 이야기, 활동 사례를 수집하고 발선했습니다. <로컬다이버>라는 시리즈를 통해 지역으로 뛰어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콘텐츠를 기획 연재했습니다. 2022년에는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특징을 각 유형별(활동가형, 예술가형, 창업가형)로 나누어 포럼과 현장탐방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공공혁신

행정, 복지, 경제, 교육, 안전, 인권 등 다양한 의제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걸맞게 정책을 발굴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정책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운영합니다.

2040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

2019.06.~2021.05.

2040년 영등포구의 비전과 미래상, 8대 부문별(▲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문화·관광, ▲교통·안전, ▲보건·복지, ▲환경·녹지, ▲교육·평생학습, ▲행정·소통)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영등포구에 거주, 생활하는 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심층면접, 숙의공론장을 운영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문화관광, 평생학습 분야를 별책보고서로 제출해 향후 영등포구의 변화상을 제시했습니다.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대화기구 구성 및 의제 발굴 연구

2020.11.~2021.03.

농정 틀 전환 사회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통해 사회협약 의제(안)를 선정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핵심그룹 구성을 위해 10개 기관 면담 진행해, 최종 9개 기관이 대화기구에 참여했습니다. 대화기구 구성 간담회, 사회협약 의제선정회의(총 3회), 핵심그룹 발족식 등 개최하여 향후 사회협약 대화기구 안정적 운영 및 논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수도권 개념 도입에 따른 공주시 정책혁신 컨설팅

2021.04.~2021.06.

행정수도 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등에 대응하고 공주시 상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차별화된 기능·역할 모색을 위해 총 3회의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공주시와 희망제작소, 지역혁신정책 포럼 간 사전워크숍 등 개최를 통한 구체적인 컨퍼런스 주제를 도출하고,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수도권 개념 ▲역사문화관광도시 ▲6차산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부천시 노동정책(2022-2026)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1.06.~2021.12.

부천시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사회조사, 고용조사 등에서 보이는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도출해 부천시만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 소외되기 쉬운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의견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하고, 행정, 기업, 노동자 등 각 이해관계그룹별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책 수립뿐 아니라 실질적인 협업,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주체별 역할까지 고민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방안 연구**2021.09.~2021.12.**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지식 생태계 전반에 요구되는 역할 변화를 탐색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경쟁환경과 기대역할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망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민관협치 긴급좌담회**현장사진****문경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1.10.~2022.01.**

청년정책 일반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문경시 청년 기본 현황과 실태, 특징을 분석해 문경시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문경시 청년 활동과 자립을 근본적으로 독려하고 지역공동체 내에 안착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 및 기반을 만드는데에 주력했습니다.

민관협치 긴급좌담회**2021.10.01.(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제기된 민관협치의 근본을 훠손하는 무분별한 비난을 바로잡고자 긴급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장, 정의정책연구소장, 전 협치자문관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협치 정책의 의의와 평가를 짚어보고, 새로운 협치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용산구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2021.10.~2021.12.**

용산구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지역 현황 조사부터 용산구 청년 1인가구 당사자 설문 조사, 심층 인터뷰를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문회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성남시 1인가구 포럼**2021.10.22.**

1인가구 인식 개선과 가구 형태별 차별없는 정책 수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1인가구 포럼은 정책 연구자 및 지원기관 전문가의 1인가구 지원정책, 사업 사례 발제와 각 세대별 당사자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운영했습니다. 세대별 특성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소통과 연구 모임인 정기포럼은 온라인으로 전환해 계속되었습니다. 격월 간격으로 재정분권, 기후위기, 청년정책, 지역 일자리, 저출생·고령화 정책 등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방정부 정책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단체장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함께 했습니다. 주제에 따라 목민관클럽 출신 국회의원도 함께 해 풍성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14차 정기포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재정분권 현황과 과제

2021.03.10.(목)

제15차 정기포럼 2050년 탄소배출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021.05.13.(목)

제16차 정기포럼 2030 청년세대 이해와 지방정부 청년정책 방향 모색

2021.07.08.(목)

제17차 정기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역 일자리 실태와 대응방안 모색

2021.09.09.(목)

제18차 정기포럼 저출생·고령화 실태와 지방정부 대응방안 모색

2021.11.11.(목)

도봉구정 11년 기념 토크콘서트

2021.07.01.(목)

'사람중심 더 큰 도봉'의 비전에 따른 도봉의 변화와 역사를 구민과 공유하고, 주민 의견 수렴의 장을 온오프라인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사람중심 더 큰 도봉' 비전에 따른 11년 도봉구의 성과와 변화상을 공유하고, 10대 성과를 정리해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1년 평가내용을 주민과 함께 공유했고, 유튜브 채널로 중계된 동영상은 약 3천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목민관클럽 목민광장

연 2회 발행되는 목민광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혁신 정책 사례를 나누고, 지방자치 동향을 정리해 지방자치 혁신에 기여합니다. 2021년 발행된 목민광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 그 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22년 대선 이슈 관련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제20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2021.03.~2021.05.

제21호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평가와 전망

2021.10.~2021.11.

목민광장 표지 및 내지



목민관클럽 총서 발간

2021.07.~2022.03.

민선 7기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 사례, 각 주제별 정책동향 및 이론적 배경 등을 보완한 목민관총서 여섯 번째 증보판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민선 5기부터 7기에 걸친 지방정부의 주요성과 확산 및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도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회혁신

#시민참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시민과 함께 합니다. 시민주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추진했습니다.

2021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2021.03.~2022.01.**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21년 활동을 끝으로 3년차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이 직접 추진하는 프로젝트 단위 사업은 축소되었습니다. 1~2년차 사업을 통해 축적된 사업 모델과 지역 파트너, 유관기관의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교육에 제안하고 교내 진로수업 및 자유학년제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정착을 위한 후속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가치 확산 네트워크**2021.05.~2021.12.**

비영리 홍보, 콘텐츠 업무 담당자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시작된 가치 확산 네트워크는 비영리 홍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매월 1회씩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비영리 홍보 네트워크 운영과 함께 2건의 프로젝트도 운영했습니다. <실무톡톡>은 네트워크 모임의 확장 형태로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신청자 중심으로 월 1회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참여자가 발제하는 형태임에도 직접적인 실무 경험을 나누는 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실무총전>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 1회, 총 5회의 발제로 구성했습니다. 발제 후에는 참가자들이 가진 경험과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

모금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이론, 워크숍, 실습, 자문을 통합한 모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지역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했으며, 모금성과를 통해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기관의 재정자립과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종로구 시니어리빙랩 - 노년의 기술**2021.07.~2021.11.**

노인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시니어, 당사자(요양보호사 등)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청년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실질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관련 기관과도 함께 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모델 구축을 실험했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기술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차기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했습니다.

지역차별언어바꾸기 프로젝트 - 어디 사람**2021.04.~2021.10.**

시민 참여를 통해 일상 속 지역차별언어를 찾고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차별언어바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후원회원 인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지역차별 경험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그룹과 함께 일상에서 지역차별언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차별언어 찾기 워크북”을 발간했습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

기후위기,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일자리, 노동, 환경, 농업, 도시재생 등의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지역혁신 정책포럼(온라인)을 경기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열었습니다.

지역 일자리와 인구감소, 공간 인프라, 농촌 산업, 지역 산업과 에너지 전환, 지역 청년의 지역 청년 일자리 관점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방소멸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문가는 국책연구기관 전/현직 연구위원으로 구성했으며, 기후위기, 지역쇠퇴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방정부 등에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제1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2021.06.30.

- 지역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현황과 과제
-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제2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2021.07.28.

- 인구지진시대 지방소멸 대응전략
- 지역 교통 시설 현황과 지속가능발전의 방향

제3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2021.08.31.

- 농촌 재생과 상생의 지역발전정책
- 완주 로컬푸드 사례와 농업 혁신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
지역혁신 정책포럼

제4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2021.09.27.

- 지금 여기의 산업과 청년
- 지역 내 인력 양성과 고용의 연계

제5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2021.10.27.

- 전북형 그린뉴딜 사례를 통해 본 에너지 전환
-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과 지역상생발전

제6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2021.11.15.

-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
-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희망이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담은 이슈 페이퍼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향후 과제

공동체성 회복과 활성화는 주민 삶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자 선결 조건입니다. 특히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교육평생학습 등의 정책에서도 주민의 참여와 협력, 공동체 의식 회복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향후 과제를 마을 공동체 및 주민참여형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리빙랩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리빙랩(Living Lab)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이슈에서는 유럽연합(EU)의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유럽 전역의 가정 등에서 에너지 사용의 상향식 변환 옵션을 개발 및 테스트한 리빙랩, 'ENERGIZE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사회혁신으로서의 시민과학

최근 시민과 전문 과학자가 협업해 수행하는 시민과학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기여,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비전문가인 시민이 과학자와 협력하는 과학활동인 '시민과학'과 행정 또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정부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혁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혁신으로서의 시민과학을 살펴봅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 갈등 중 하나입니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최저임금 위원회의 대표성 문제도 있습니다.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정작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배제된 최저임금 협상을 극복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국제사회는 2015년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상승온도를 1.5°C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조량이 좋은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함께 한 희망씨

후원회원 프로그램

후원회원 인터뷰

HOPE *

*
후원회원 프로그램

후원회원 프로그램
읽는시민

*

홍선희
후원회원 인터뷰

*

조형준, 김미숙
후원회원 인터뷰

*

이상철
후원회원 인터뷰

*

김상윤, 김정선
후원회원 인터뷰

*

CONNECT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지지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일구고 있는 후원회원을 만났습니다.

후원회원 프로그램

후원회원, 시민과 함께 다양한 실험과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듭니다.

보이는 라디오 : 세월호 7주기,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2021.04.15.

세월호 7주기를 맞아, 안산 공동체에 안녕을 묻고 세월호 사건을 함께 추모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를 공유하며 공동체 회복의 의미를 탐색했습니다.

하이 후원회원 : 지구를 위한 플라스틱 제로 샴푸바 만들기

2021.06.30.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샴푸, 세제 등을 고체비누로 바꾸는 트렌드에 맞춰, 후원회원과 함께 샴푸바 만들기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만든 오디오북 : 읽는 시민

2021.08.~2021.10.

<읽는 시민>은 희망제작소 콘텐츠를 시민이 직접 낭독하여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희망제작소 연구의 성과물을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고 확산했습니다.



[읽는시민 유튜브 바로가기](#)

시민 ‘김릇’이 읽은 맛있게 숙성된 마을공동체, 사회문제 해결까지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공동체와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사회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읽는시민 유튜브 바로가기](#)

시민 ‘김혜린’이 읽은 지역소멸 위기 속 거창군의 선택은?

“부산사람 김혜린입니다. 거창에서 본 부산은 서울과 마찬가지의 대도시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사람이 본 수도권처럼요. 균형은 이렇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은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잡고 싶겠죠? 부산사람으로서 소멸 위기 지역의 사람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중심의 축을 옮기자고 말입니다. 북쪽 아닌 남쪽으로, 대도시 말고 동네의 마을공동체로, 거대한 것 말고 사소한 것으로 말입니다.”



읽는시민 유튜브 바로가기

시민 ‘이경민’이 읽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아동복지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동네에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간혹 들려오는 아동학대 사건에 마음 아파하고 분노할 뿐입니다.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도, 받는 일도 더 어려워진 지금. 희망제작소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힘들어하는 가정과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읽는시민 유튜브 바로가기

시민 ‘홍선희’가 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리빙랩

“오늘날, 지구촌 곳곳이 엄청나게 열병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며 우리 선대들이 며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자손들 몇까지 앞당겨서 자원을 마구마구 훼손한 탓이지요.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유럽 8개 나라에서 300가구가 3년 동안 자신들의 생활공간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참여하고, 기록하고, 미래를 위한 제안까지 한 리빙랩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읽는시민 유튜브 바로가기

시민 ‘박기순, 정예성’이 읽은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

“이제부터는 첫 만남에 있어 ‘어디 사람?’이라고 물어보기보다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보려 합니다.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요?’ 등 ‘어디사람’이라는 질문 외에도 할 수 있는 질문이 이렇게나 많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안에서 편견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걸음씩 내딛며 보는 건 어떨까요?”

후원회원 인터뷰



홍선희 후원회원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중에는 멋진 인생의 항훈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분만큼 다양한 여가 활동을 누리는 회원이 있을까 싶은데요. 춤, 가야금, 민요, 고전문학 낭독, 연기까지 다채로운 활동을 즐기는 홍선희 후원회원입니다. 홍선희 후원회원은 2011년부터 희망제작소를 후원해 올해 후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가 활동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홍선희 후원회원을 만났습니다.

“참여는 마이너리티로서의 저를 지키는 방식이죠.”

나이듦 속 발견, 내 일상의 코드는 ‘몸’

홍선희

(이하 홍) 나이가 들면서 몸을 제대로

운신하는데 관심이 갔어요. 몸치였던 제가 수년간 기체조를 하니까 머리는 비우고 몸은 채우고 싶더라고요. 기예에 관심이 생겨서 장구, 민요, 춤, 여성국극 등 우리 것부터 서양의 것까지 조금씩 배워봤어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포크댄스, 경기민요, 가야금병창, 나중에는 댄스스포츠까지. 몸이 즐거웠지요. 2016년 봄에는 안은미 무용단 할머니 춤 패로 프랑스, 스위스의 핫한 극장에서 한 달 간 순 공연도 참여하며 홍이 쌓였어요.

서울 성북구에서만 40년을 거주해온 홍 후원회원은 동네 주민들과 민요를 불러 성북구 동네 축제 무대에도 올랐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장 아쉬운 것이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홍 후원회원은, 다양한 활동만큼 다양한 시민단체에 기부를 실천 중입니다. 나눔은 그의 직장생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홍선희 후원회원

홍

영어일간지 언론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25년 일했어요. 오랫동안 사내 유일한 여기자였는데 언론사 근무 조건이 워낙 열악하고 유리천장에 부딪히다 보니 일터에서의 삶이 성에 차지 않은 거죠. 어쩌면 회사에서 느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의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닌 건지도 모르겠어요.

90년대 중반부터 경제정의실천연합이나 참여연대에서 주관하는 시민 강좌에 참여하며 희망제작소까지 연을 맺게 되었다는 홍 후원회원. 퇴근 후 피곤할 법도 하지만, 기자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뿌듯함을 느껴 꾸준히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해외 자료를 발표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영어 실력을 발휘해 번역 일을 돋기도 했습니다.

홍

희망제작소 안국동 사무실이 회사와 가까워 자주 드나들었죠. 당시 있었던 몇몇 연구원들 이름을 아직도 기

억해요. 우리 사직동 빌라에 희망제작소 인턴 청년이 살기도 했어요.

끊임없는 관심은 기부와 사회 참여로

그렇게 희망제작소와 연결된 흥선희 후원회원은 10년 전 행복설계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등 희망제작소 교육 프로그램 통해 깨어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이 읽는 오디오북, 읽는시민>에 참여했습니다.

홍 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더는 활자를 읽기가 어려운 정도였죠. 실명될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서 노는 방법을 찾다가 라디오, 오디오북 등 청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읽는 시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이었으면 관심 갖지 않았겠지만, 희망제작소니까 참여했죠.

희망제작소 외에도 나눔문화, 고려인단체, 환경단체 등 여러 단체에 기부를 실천하는 흥 후원회원은 후원뿐 아니라 평화 활동가를 위한 1인 시위, 미얀마 여대생을 위한 물품 기부 등을 통해 꾸준히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동포 지원단체 '동북아평화연대' 부이사장으로 봉사하며, 2021년 11월 세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류가 아닌 이방인에 끊임없이 관심 가져온 그에게 사회 참여의 동력을 묻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홍 저는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집합하는 사안에는 도리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죠. 정말 내가 필요한 일,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일에 봉사합니다. 숫자로 우위를 점하려는 집단의 폭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의 역할을 고민하는 거죠. 보통 사회 문제를 대할 때, 편 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저 탓할 대상을 찾더군요. 이게 유리천장을 넘지 못한 마이너리티로서 저를 지키는 방식이죠.

언론사 퇴직 20년, 뉴스가 소모품이 아니기를

일간지 언론사에서 퇴직한 지만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흥 후원회원의 눈빛에서는 기자로서 호기심과 사회의식이 읽혔습니다. 25년을 근무한 베테랑에게 요즘 언론에 관해 물었습니다.



홍 저는 균성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모자란 밥벌이꾼이었지만, 정확한 기사를 쓰며 윤리를 지키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따금 뉴스를 접하는 소극적 독자일 뿐이지요. 기본 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마구 뱉어내고 '아니면 말

고'식 기사를 생산, 확산하고, 뉴스가 상품으로 소비되는 세상이니까. 기자 명함 내미는 이들은 많은데 발로 쓴 기사, 직접 현장에서 일대일로 취재한 기사는 많지 않더군요. 소속사의 우산을 걷어차고서라도 책임질 수 있는 기사를 써야 기자이지요.

자신의 신념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온 홍 후원회원다운 조언이었습니다. 이어 요즘 관심사는 '비우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홍 물건이든 관계든 비워야 보이는 법이니까요. 가진 걸 주변과 나눌 줄 알아야 해요. 자고로 남에게 주려면 좋은 것, 아까운 것을 나눠줘야죠. 그래야 다른 것도 쉽게 놓아줄 수 있어요. 지인이 거실 소파를 바꾸고 싶다기에, 소파를 새로 사기 전에 거실을 비워놓고 몇 달 살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소파를 새로 사더라도 소파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희망제작소에게는 시니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 나이 든 사람에게 관심을 표하고, 희망을 지어주세요. 세대 간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명절에 기차표를 사려고 하면, 노인은 새벽에 가서 줄을 서고 젊은이는 스마트폰으로 싸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 일은 사람의 자존감을 살리는 일입니다.

홍선희 후원회원과의 만남 이후, 은퇴한 혹은 은퇴를 코앞에 둔 이 시대의 많은 시민을 해아려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이들 시민은 각자 어떤 사회를 꿈꾸며 인생 이모작을 일구고 있을까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이를 삶에 깃들어있는 참여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것이 홍 후원회원을 빛나게 하는 가장 큰 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원회원 인터뷰



이상철 1004클럽 후원회원 | 화인데코 대표

반가운 후원회원을 만났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고 계신 이상철 1004클럽 후원회원입니다. 이상철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뿐 아니라 여러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일 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 있는 나눔과 실천은 바로 이상철 후원회원의 소유에 관한 좌우 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돈은 내가 벌었지만,
잠시 내게 온 만큼
돌려보내야죠.”**

이상철

(이하 이) 돈은 내가 벌었지만, 사회에서 잠시 내게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려보내야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도덕경에 있는 생이불유(生而不有)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고 있어요. 요즘 자리에 욕심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권력이나 자리욕심도 똑같죠. 어떤 자리에 머무르면 잠시 역할을 맡은 것인데 거기에 욕심을 내고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철 후원회원은 요즘 사회에서 모든 영역이 돈으로만 가치를 평가하는 흐름도 지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이지만, 많은 벗과 함께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부자이고, 나를 위한 시간이 많은 사람이 더 부자라는 말씀도 덧붙였는데요. 매일 치열한 경쟁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가치를 품은 일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평범한 5060의 삶, 조금 다른 기부가족

이상철 후원회원의 삶의 궤적
이 궁금하다고 여쭙자,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후원회원이 보탠 한 마디, 한 마디는 나눔과 실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생활건강사업부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건축 분야 사업부로 옮겼고요. 현재 일하는 건축 관련 일을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죠. 하지만 돈을 벌려고 하니 그때 했던 일이 사업 아이템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네요.

이상철 후원회원은 10년간 회사에 다니다가, 이후 10년간 사업을 한 이후 전원생활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아내와 함께 어떻게 전원생활을 꾸릴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철 후원회원의 특별한 이야기는 가족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철 후원회원뿐 아니라 아내, 자녀 2명(이상철, 김은숙, 이솔, 이형섭) 모두 희망제작소의 1004클럽 회원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후원회원으로 동참했고, 이어 딸과 아들 모두 희망제작소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원회원 가입은 그냥 거의 제 뜻이었죠.(웃음) 자식들한테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싸야 하거든요. 피가 돌려면 계속 순환을 해야 하고요. 계속 먹기만 하면 비만이 되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겠죠. 나눔도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1004클럽 후원회원 가입을 권했어요.

이상철 후원회원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눔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습관처럼 시작된 나눔의 삶이 자식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바람이 컸습니다. 이솔, 이형섭 후원회원의 1004클럽 가입은 더 많은 나눔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눔의 실천으로 만난 희망제작소

이상철 후원회원이 희망제작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친구의 권유로 아름다운가게의 운영위원을 맡으면서입니다. 당시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헌책방을 직접 운영하던 때였는데요. 사람과의 인연, 책과의 인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후원회원은 지역에 헌책방을 열어 운영했고, 이러한 인연이 이어지면서 희망제작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후원회원들이 함께 터키로 해외 탐방을 떠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탐방을 함께 갔던 분들이 대단했어요. 저는 그냥 아내와 같이 따라 다니기만 했죠. 낯선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 박원순 前 상임이사가 저희 부부를 많이 챙겨주셨고, 그 이후로 희망제작소의 활동에 관심이



한성규 팀장(좌)과
이상철 후원회원(우)

커졌어요. 이후에 여행을 같이 간 후원회원들이 향기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철 후원회원은 온 가족을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으로 함께 독려한 것은 물론 주변 지인에게도 발 벗고 나서 후원회원 가입을 추천했습니다. 실제 고교동창인 김종환(前 서울시야사회 회장) 후원회원도 1004클럽과의 인연이 시작되기도 했죠.

그래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이상철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향한 따뜻한 관심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해 연구하고, 활동하면서 일하고 있지만, 막상 외부에서는 정치나 출세지향적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시선에 매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연구와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작은 양의 소금 때문이잖아요. 연구원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소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희망제작소뿐 아니라 시민활동가들 각자 그러한 보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게 일하지만, 보람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라 생각합니다.

이상철 후원회원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광주송정역으로 가는 길 내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희망제작소보다 더 나은 희망제작소를 위해 후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이 있기에 희망제작소의 발걸음은 느려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후원회원 인터뷰

“사회에 대한 관심이 희망의 시작으로”

김미숙 후원회원 | 청양군청 공무원

조형준 후원회원 | 서울시민기자·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코로나19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물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모두 전환했는데요. 온라인으로 만나보면, 참여하는 회원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으로 회원님을 만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회 문제에 참여로 맞서는 청년, 그리고 청양을 사랑하는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희망제작소

(이하 희망)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를 부탁 드려요.

조형준

(이하 조) 서울 시민기자이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이하 김)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쭉 살고 있고, 청양군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

모두 반갑습니다. 김미숙 회원님은 행정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조형준 회원님은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조 청년 활동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사회 문제를 다룬 장편소설을 집필하고 있고요.

희망

혹시 어떤 내용으로 소설을 집필 중인가요.

조

특수학교와 님비현상에 관해 쓰고 있어요. 작품 속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특수학교 관련 님비는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지점이죠.

희망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주셨어요. 두 분 모두 희망제작소와의 첫 만남, 기억하세요?

김미숙 후원회원(좌)
조형준 후원회원(우)



조 몇 년 전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면면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어 후원까지 시작했어요.

김 오래 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희망제작소 설립 초기 희망제작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파견 및 교류 과정이 있는 걸 알고 관심을 가졌어요.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희망제작소에 1년간 공무원 파을 보낸 적이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희망 혹시 희망제작소의 활동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나요.

김 지역에서 살다보니, 프로그램 참여가 쉽진 않은데 독서토론방 <하루한책>(희망제작소 오디오북을 매일 1권씩, 5일간 읽고 오픈채팅방에서 소감을 나누는 프로그램)에 함께 했죠.

조 저도 <하루한책>이요.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함께 할 때 더욱 커지는 좋은 일

희망 희망제작소 회원에게만 보내는 뉴스 클리핑 이메일 서비스 ‘이슈 속아보기’가 있는데요. 두 분 모두 ‘이슈 속아

보기’를 엄청 열심히 봐주시더라고요. (뉴스레터 오픈율이 70%에 달한답니다) 열심히 찾아본 이유가 있나요?

김 사실 요즘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매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면서도...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이야기를 전해줘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 우선 제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이슈 속아보기’에서 다루는 주제가 마음에 들어요.

김 제가 살고 있는 청양은 사회참여활동이 다양하지 않아요. 주민들도 관에 의지하는 편이고, 시민단체 활동도 전무하죠. 지역이 작으니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서로 눈을 의식하니까 목소리를 잘 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참여활동이 주도적이긴 어렵죠.

사회에 참여하는 청년이 되기까지

조 제가 만약 ‘이슈 속아보기’를 만든다면, 장애인 혹은 노숙자에 관해 다루고 싶었어요. 2015년부터 5년 간 서울에서 청년 노숙자로 지낸 경험이 있거든요.

희망 사연이 있었군요.

조 아버지의 아동학대를 피하기 위해 서울에 왔지만 휴대폰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노숙자로 지낸 경험이 있죠.

희망 힘든 시간을 거쳐 지금은 시민기자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목소리를 많이 내주세요.

귀 기울여 듣는 행정, 당사자 입장에서 만드는 정책

희망 사회 참여와 협치 등 김미숙 회원님의 철학이 있나요.

김 청양 지역에서 공무원은 우위에 있는 집단으로 혜택을 받는 셈이죠. 언제든 주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편견을 갖지 않고 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죠.

조 저도 서울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시민의 이름으로 알릴 수 있어 좋았는데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청년의 입장에서 직접 만든다는 점이 소중한 것 같아요.

희망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열린 행정,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그리고 숙의과정을 위한 구조는 함께 살기 위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와 배움의 장이 열려 있는 사회, 인문학이 생활화된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부터 시작해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까지 노동자를 국가, 사회, 회사의 부품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으로는 청년에게 노동 의지를 심어주기 어렵잖아요. 지금보다 노동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희망 두 분 모두 배우고 일하고 나누는 즐거움을 이어가고 싶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 '이슈 속아보기'의 열렬한 구독자, 지역에서 변화를 일구는 시민 등 두 분 모두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지을 수 없지만, 따뜻한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자신이 선 자리에서 노력한 분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보낸 메일 한 통도 놓치지 않고 찬찬히 읽어보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번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다음에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응원의 말을 건넬 수 있길 바랍니다.

후원회원 인터뷰



- 김상윤 후원회원(좌), 김정선 후원회원(우)

김상윤, 김정선 후원회원 | (주)더세이버

2020년 여름 희망제작소 지하 1층에 한 스타트업이 입주했습니다. 희망제작소와 공간을 공유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한겨레>, <씨네21>을 거쳐 새로운 대안 미디어를 꿈꾸는 (주)더세이버의 김상윤, 김정선 후원회원입니다. 김상윤, 김정선 후원회원은 쓸아지는 ‘기사 홍수’ 속에서 핵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는 ‘뉴스 브리핑’ 서비스를 선사하는 세이버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나날을 일구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죠.”

20년 전 한겨레에서 만나 지금까지

김상윤 회원은 <한겨레> 창립 초기에 입사해 <한겨레21>, <씨네21> 등의 신사업을 기획하고, 약 10여 년간 <씨네21> 대표를 지냈습니다. 김상윤 회원과 김정선 회원은 20년 전 <한겨레> 채용 면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요. 상사와 신입사원으로 만난 두 사람은 <한겨레>, <씨네21>, 영화 배급사 <씨네룩스>로 자리를 옮기며 15년 넘게 함께 일해왔습니다.

김상윤

(이하 상) 큰 인연이죠. 이 친구가 어떤 일이든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기도 하고, 잘 통하는 무언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함께 일하고 불렀죠.

김정선

(이하 정) 코드도 잘 맞았지만, 마침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타이밍 좋게 제안을 주셨어요. 서로 보완되는 면을 갖고 있어서 합이 잘 맞아요.

인맥이 넓은 김상윤 회원이 일의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김정선 회원은 세부 계획을 짜고, 실무를 도맡는 등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업무 호흡이 잘 맞았던 이들은 7년 전 <씨네21>를 떠나 영화 배급사에서 예술 영화를 배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퍼소닉>(2016), 레이디 맥베스(2017), <벤 이즈 백>(2019) 등을 배급했습니다.

상 자금력이 약한 작은 회사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배급할 순 없으니까요. 예술영화가 틈새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쟁이 워낙 치열했고 예술영화 시장이 좀처럼 성장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쏟아지는 뉴스로부터 당신을 구하는 뉴스, 세이버

두 후원회원의 궤적을 따라가면 누군가와 누군가가 만나는 접점과 관련한 일을 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언론사에서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연결점을 모색하고, 영화 배급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보석 같은 영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시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정보와 뉴스가 범람하면서 길을 잊을 수밖에 없는 미디어 현실에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뉴스 브리핑과 심층 브리핑을 서비스하는 플랫폼 '더 세이버'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기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월급도 없이 일을 시작하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상윤 후원회원(좌)
김정선 후원회원(우)

정 기존 언론에 불만이 많았어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언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포털사이트를 보면 너무 많은 뉴스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배치되는 뉴스가 곧장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세이버'를 시작하게 됐죠.

'세이버(Saver)'는 두 가지 정의를 지닙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 독자가 필요한 뉴스를 찾아 독자의 시간을 '절약한다'(save)는 것.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처한 언론을 '구한다'(save)는 것. 세이버 앱에 접속하면 전문가가 선정한 주요 뉴스를 매일 아침저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고, 정식 서비스는 3월경 오픈 예정(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입니다.

상 요즘 뉴스를 보면 신문사마다 자기 입맛에 맞게 통계를 왜곡해요. 예를 들어 2025년이 되면 모든 선진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어떤 기사는 '2025년 이후 한국 경제 암울'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일부만 보도하는 거죠.

미디어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신뢰를 잃어가는 언론을 바라봐야만 했던 두 회원은 이제 편파적인 뉴스를 걷어내고 핵심을 담은 뉴스를 직접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 가장 무서운 게 습관이잖아요. 뉴스를 보는 소비자의 행동도 습관이거든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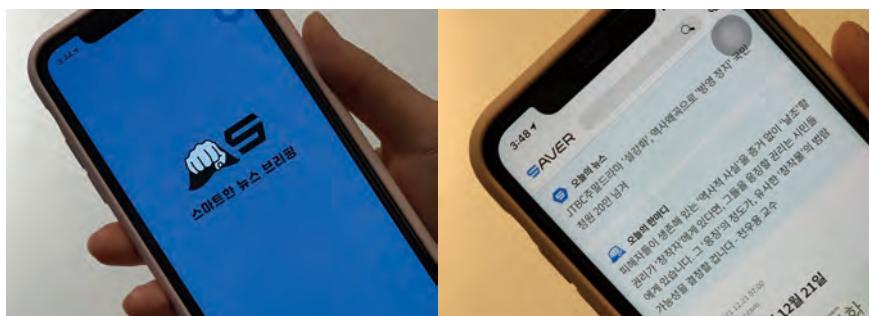
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뉴스는 네이버가 아니라 세이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새로운 미디어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회원은 희망제작소 후원이자, 희망제작소에 입주한 구성원으로서 겪은 감회를 전했습니다.

정 처음 희망제작소가 참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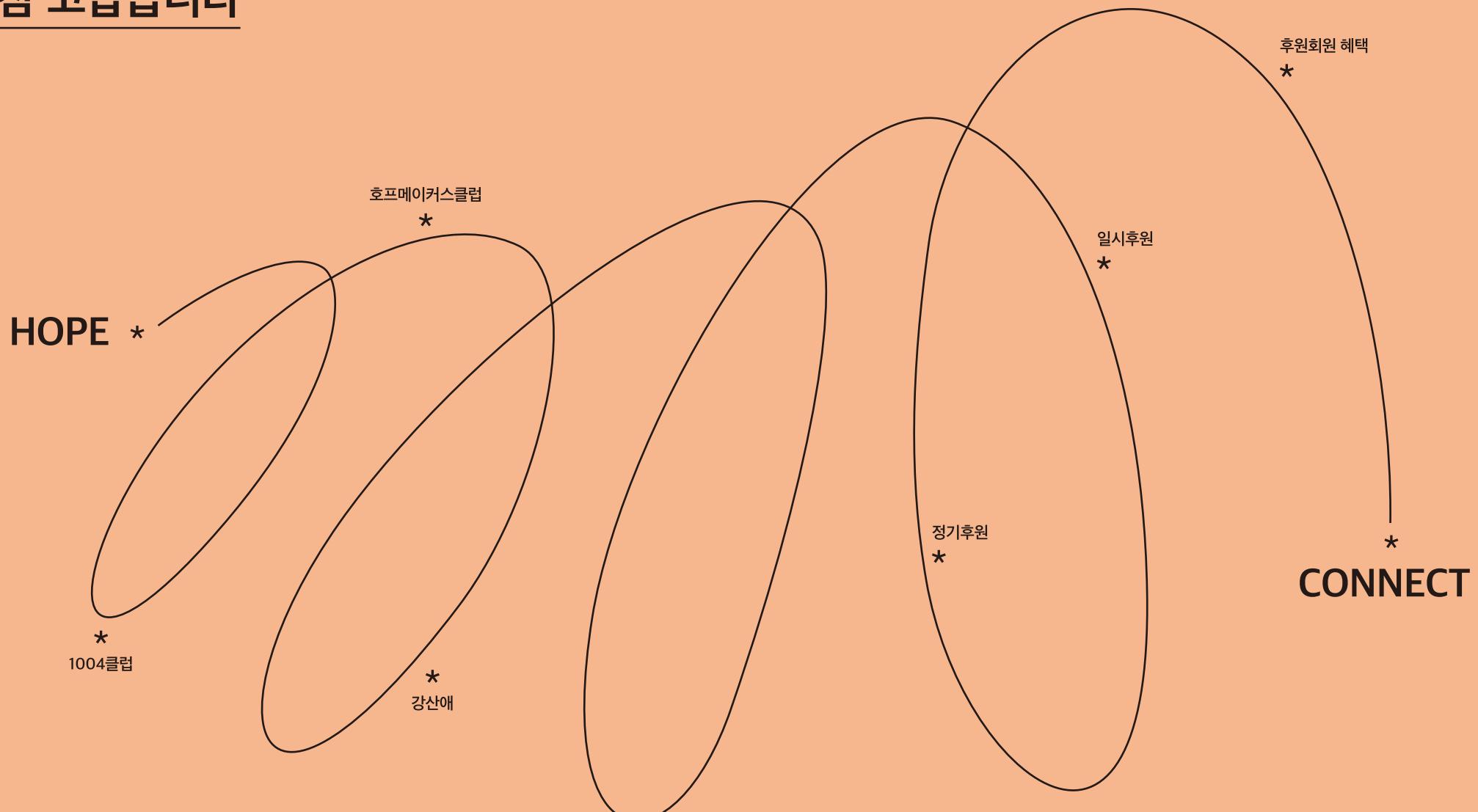
외부인이 희망제작소 공간에 들어와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너무 환영해주셔서 내향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빨리 적응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사회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문제도 그렇고 서로 각을 세우는 일이 많잖아요. 서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함께 잘 지내는 사회를 꿈꿔요. ‘나와 다른 사람은 모두 틀렸다’는 시선이 바뀌었으면 하고, 이러한 흐름에서 ‘세이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김정선, 김상윤 회원은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바꾸기 위해 미디어 시장에 뛰어들어 스스로 미디어가 되기를 선택한 분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로 사회의 변화를 일굴 수 있다고 믿는 것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앞으로 세이버가 대안 미디어로 성장해 우리 사회의 변화뿐 아니라 언론 지형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응원합니다.



세이버(Saver) 화면 구성

참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찾고 이를 위한 변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기부합니다.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더 많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 희망의 불씨를 만들고 키우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회원 그룹

1004클럽

희망제작소 1004클럽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3년 안에 1천만 원을 후원하는 희망제작소의 고액기부자 커뮤니티입니다.
1번부터 1004번까지의 희망번호를 골라, 희망제작소 명예의 전당인 ‘천사의 벽’에 기부스토리와 함께 소개됩니다.

호프메이커스 클럽(HMC)

2009년 4월,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희망제작소를 응원하는 오피니언리더 모임 호프메이커스클럽(Hope Makers' Club, HMC)이 발족했습니다. HMC 후원회원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후원하여 희망제작소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정기모임, 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후원회원 커뮤니티 강산애

강과 산을 사랑하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모임 ‘강산애’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산행을,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는 역사문화 탐방과 트레킹을 합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이음팀 02-6395-1415 | give@makehope.org

후원회원 혜택

- * 희망제작소와 함께하는 사회혁신 여정의 시작을 축하하는 웰컴키트를 보내드립니다.
- *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담긴 후원회원 프리미엄 서비스 ‘이슈 속아보기’(이매일)를 월 2회 보내드립니다.
- * 후원 기간에 따라 기념카드, 증서 등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 강산애(등산모임), ‘하이 후원회원’ 등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모임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이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습니다.
- * 명사특강, 문화나눔 등 시민프로그램에 우선 초대되며, 참가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정기후원



일시후원

투명한 희망씨

2021 살림살이



후원금은 희망제작소 운영의 근간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살림살이는 공개, 신속, 준법, 감사, 친절 등 5대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

2021년 희망제작소 살림살이를 말씀드립니다.

수입은 후원금 약 5억7천만 원, 용역수입 약 9억8천만 원, 기타수입 약 4천9백만 원으로 총 약 16억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은 사업 및 일반관리 비용으로 약 15억8천만 원, 자급이자 등 기타비용으로 6천8백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 16억5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 수입 및 지출 수지는 약 4천4백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희망제작소의 새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사업수익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후원회원 기부금 역시 큰 폭으로 줄어 4천4백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도 지속될 코로나19와 대선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하여 작년 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더 알뜰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같이 고민하여 더욱 더 좋은 대안을 찾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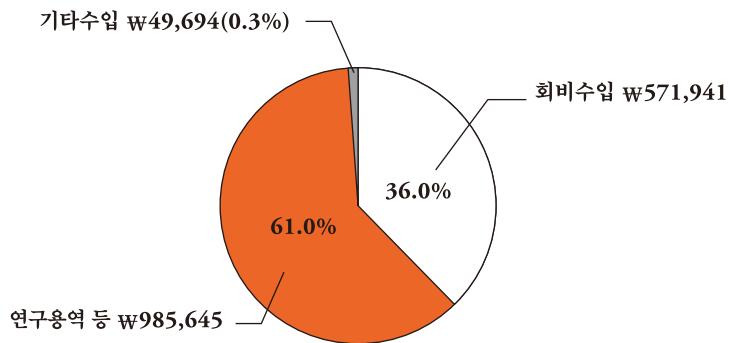
고맙습니다.

수입/지출 내역

수입

₩ 1,607,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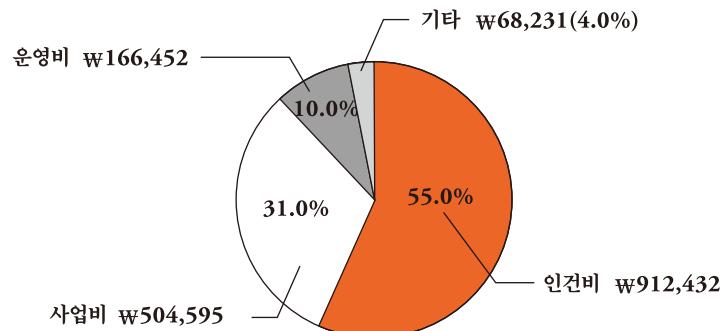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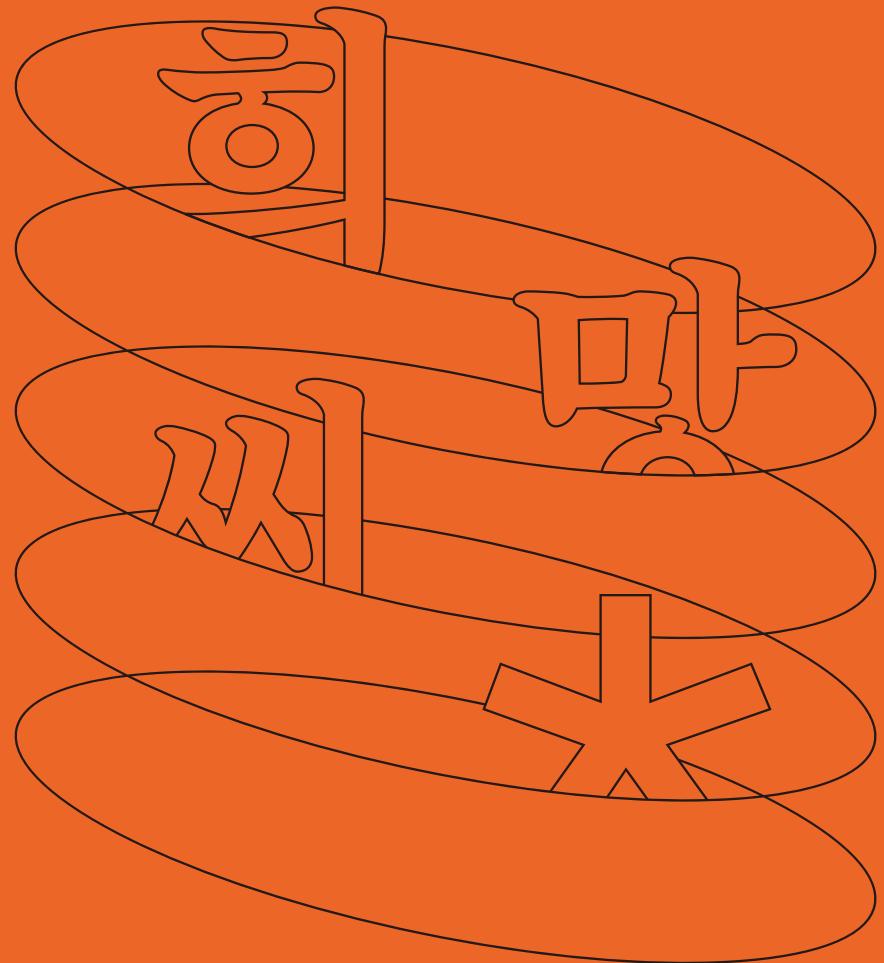
지출

₩ 1,651,710

단위: 천 원



2021 희망, ()씨는



#지역소멸 #지역일자리 #청년
#지역차별 #지역공동체 #시민참여

소멸 대신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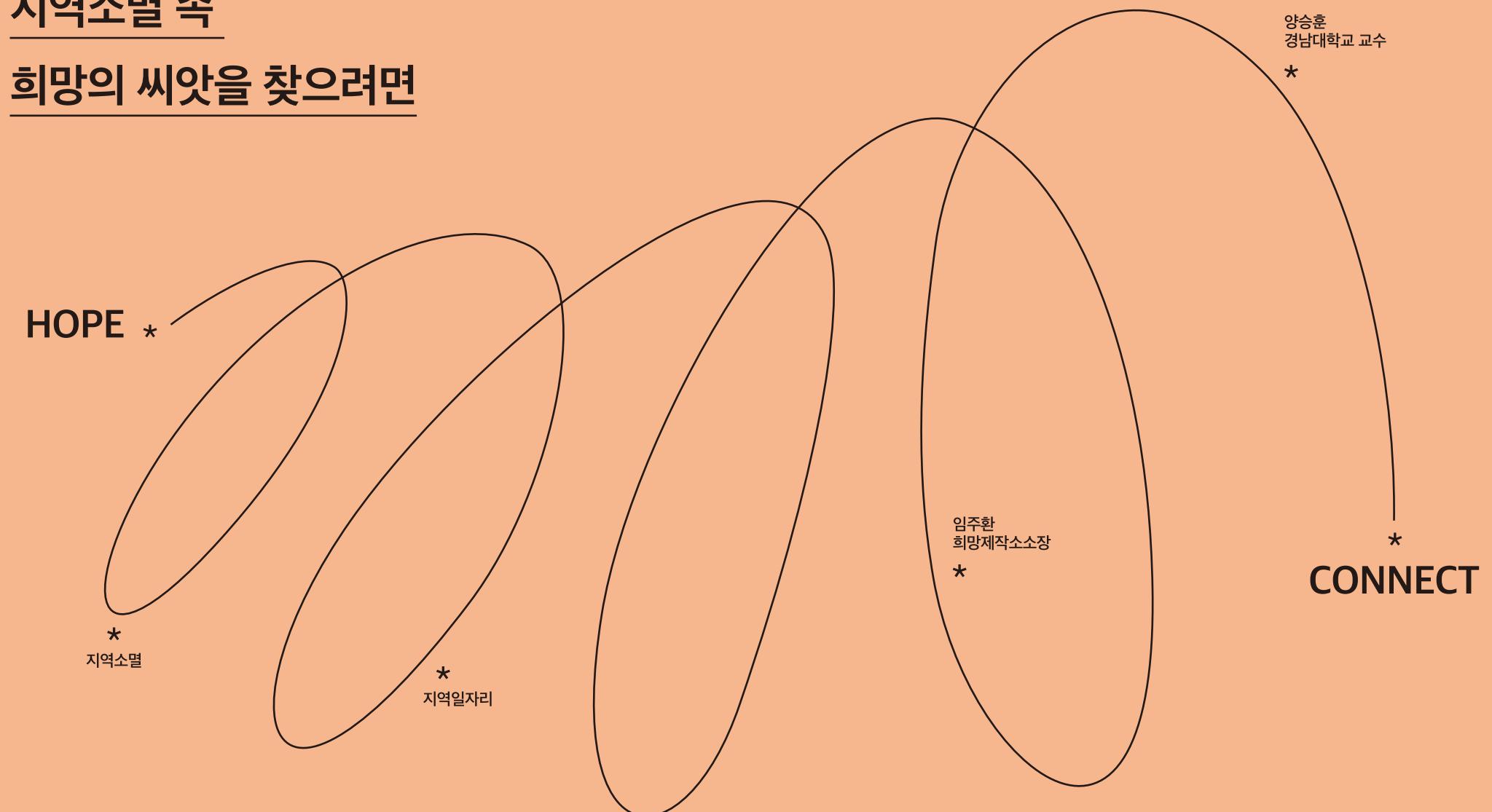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처음으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 소지역'으로 지정(2021년 10월 기준)했습니다. 매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매년 조사해온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108곳이 소멸위험 단계(2021년 8월 기준)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21년 주민참여/지역혁신, 지역쇠퇴/지역일자리, 공공혁신/정책혁신, 사회혁신/시민참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 및 활동을 펼쳤는데요. 이 중 핵심 연구와 활동은 '지역소멸'이었습니다. 갈수록 선명해지는 '지역소멸' 위기론 속에서 지역 일자리의 해법은 없는지, 소멸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시도는 없는지, 지역에서 벌이는 크고 작은 실험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단박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역소멸'을 외면하지 않고,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으로 연결된 다양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소멸 속에서 지역 일자리를 모색하는 전문가들을 만났고, 수도권 중심의 지역 차별을 탈피하려는 시민을 만났습니다. 또 지역을 재해석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2021 희망, ()씨'에서는 지역을 다각도로 바라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시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역소멸 속

희망의 씨앗을 찾으려면



#지역소멸 #지역일자리

희망제작소는 창립 때부터 지역의 쇠퇴가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라는 데 주목하고 지역혁신을 주창해왔습니다. 지역소멸이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소멸과 지역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는 무엇인지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과 양승훈 경남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지역소멸은 한국사회에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임주환 | 희망제작소 소장

지역소멸이 화두다.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 지역+소멸고위험 지역)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21년 108개(47.2%)에 이른다. 2017년 85개, 2019년 93개, 2020년 105개로 매년 증가세다. 지역소멸 위험은 먼 미래가 아닌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인 셈이다. 희망제작소는 임주환 소장과 지역소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대안을 모색한 인터뷰를 전한다.

지역소멸이 화두입니다.

우리는 왜 지역소멸을 집중해야 할까요.

임주환

(이하 임)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뼏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어들어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 잘 부러지는 질환이죠. 다른 하나는 블랙홀이라는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 나이가 들어 중력이 좁은 지점에 집약되면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됩니다.

이 비유를 드는 것은 결국 지역의 쇠퇴, 지역의 소멸이 우리사회의 붕괴를 부를 만큼 심각한 문제임을 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창립 때부터 지역의 쇠퇴가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라는 데 주목하고 지역혁신을 주창했습니다. 당시엔 아직 소외 지역소멸론이 대두되기 훨씬 전이지만,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소멸을 가시화한 현상은 ‘인구감소’입니다.

임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한국사회의 상황을 수치적으로 살펴봤는데, 지역 소멸의 문제를 ‘인구감소’ 측면으로만 다가가면 해법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따릅니다. 지역소멸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상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얘기할 때, 인구 이외에 어떤 요소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임 일자리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그 밖의 지역들 간 임금과 가치분포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니, 서울과 전국 평균 간 1인 당 지역 소득 격차는 2014년 368만 원에서 2019년 766만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건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방증입니다.

서울의 1인 당 지역내총생산은 2014년 3,312만 원에서

2019년 4,487만 원으로 1,170만 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국평균은 2,944만 원에서 3,721만 원으로 760만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을 감안하면 1인당 자산 격차도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고용률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보건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메가시티 논의는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임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도쿄와 그 이외 지역의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연계증추 도시전략’을 세웠는데, 권역 중심도시를 지정해 도시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하고 주변지역을 연결한다는 콘셉트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논의되는 메가시티론은 동남권은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대구경북권은 대구를 중심으로, 호남권은 광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충청권은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일종의 지역소멸을 막는 댐을 구축한다는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를 이런 전략으로 완화하자는 것인데, 이런 개념이 지역쇠퇴, 지역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여론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역쇠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 있을까요.

임 지역쇠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그동안 만들어 낸 대안 사례, 즉 지역혁신의 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소멸 혹은 지역쇠퇴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지역은 붕괴되고, 수도권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부족 등을 겪게 됩니다. 지방에서 일자리가 없고 정주여건이 악화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만들어 낸 희망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산학협력형, 농업혁신형, 지역자원활용형, 에너지전환형, 신산업유치형 등으로 모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임 지역소멸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단계이지 대안적인 모델이 학문적으로 정립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탁상공론보다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위기에 처했지만, 한편

으로 지방정부의 효능감이 높아지는 사례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틀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미뤄볼 때 지역소멸 의제도 지방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해법을 모색하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희망제작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임 희망제작소는 창립 때부터 우리사회의 희망의 씨앗을 발굴하고, 그 씨앗이 제대로 싹틔울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씽크 앤 두 텩크’라고 불렀습니다. 지역소멸, 지역쇠퇴의 심각성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지역소멸에 관한 대응을 모색하며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역혁신입니다.

희망제작소도 지역혁신이라는 본연의 미션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살만한 지역을 만들까, 일자리를 만들고 개선할까,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까, 지역의 생태적 전환을 이뤄낼까. 이런 현장의 과제들에 더 깊이 천착해야 합니다.



양승훈 |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지역소멸 속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지역에 남고 싶어도 생애 경로에 따라 나만의 커리어를 쌓기 어려운 현실이 도사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해법은 없을까. 희망제작소는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에서 지역사회와 산업의 관계, 산업의 흥망성쇠를 주목하고, <추월의 시대>에서 한국사회의 성장기를 재해석한 양승훈 교수를 만났다.

지역의 ‘장소성’을 부각하고, 산업의 전환을 꾀해야죠.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양승훈

(이하 양)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어떤 일자리를 공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중위계층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나’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대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제조업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일자리도 1990년대 이후로 비정규직화되었습니다. 정규직 채용도 줄어들면서 누적된 게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대학생의 증가도 들 수 있습니다. 2000년 대쯤부터 대학진학률이 70%까지 높아졌습니다. 대졸 청년들은 ‘화이트칼라’인 사무직이나 엔지니어직 혹은 연구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대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죠. 비정규직화 등 제조업 일자리의 질도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산발적이고, 임시적이라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양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공무원과 공기업밖에 없다고 봅니다. 청년취업 시장의 압박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허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청년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두고 ‘나하고는 먼 일자리’라고 여길 정도로 장벽이 높습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간접 일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 유튜브 제작자)을 들 수 있는데요. 해당 사업은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제공 및 최소 6개월 고용을 보장하는 등 기업과 대학 간 이해가 맞물려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청년이 볼 때 근무형태, 근무조건, 처우의 질이 떨어지는 간접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는 동시에 청년은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일 사례처럼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술, 직무 등을 표준화해 업데이트하며 관리·평가한다면 학교나 지자체에서 연결하는 간접 일자리의 질도 표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중심축입니다. 어찌 보면 청년일자리가 풍부할 것처럼 보입니다.

양 부울경 중 부산과 울산·경남은 다른 양상입니다. 부산은 영세기업과 중소규모 이상의 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가 있지만, 임금이 열악합니다. 부울경 청년 중 화이트칼라로 일하고 싶은데 수도권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부산으로 취직해 박봉으로 일을 시작하죠. 노동시장의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울산·경남은 전체 일자리를 보면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들여다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고 전문직, 사무관리직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현황은 어떤가요.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양 일자리의 질적 전환 측면에서 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아도 일자리의 질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추세인데요. 생산직 인력이 필요함에도 정규직이 아닌 원하청 도급 형태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직자가 ‘n차 하청’에 일할수록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열악해지고 있는 셈이죠. 주로 생산직에 취업하는 남성 청년은 ‘하청 일자리’를 아르바이트처럼 경험할 수 있어도 ‘직업’으로 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 청년은 서비스업이 많은 부산에서 일하는데 박봉이기 때문에 이직을 원합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울산·경남의 사무보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어도 단기·무기계약 형태가 많습니다. 만약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등 생애 경로 변화를 감안하면 일자리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자신만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네요. 지역 일자리와 구인·구직 간 구조적 미스매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또 이런 흐름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양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일자리 문제가 큽니다. 현재 일자리가 열악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용접을 배워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이직 사다리’를 타고 커리어패스를 만들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상향 이동이 어렵습니다. 대졸 사무직은 근속이 쌓여도 초봉 언저리를 맴돌고, 기술이 있는 생산직도 연봉 형편이 조금 나아도 비슷한 수준이죠.

이밖에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스플오프로 생긴 중소기업이나 지자체의 사업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건비만 유지하는 정도의 기업이 많아서 청년들이 지방에 남기 어

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이 중 하나는 보장돼야 합니다. 진급 혹은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거나 처우나 인정 등 대우를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들이 청년조례를 만들거나 다양한 청년정책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지역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양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조례 제정 등을 펼쳤지만 청년 맞춤형으로 다원화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이 미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마다 ‘베스트 프렉티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청년몰’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몰은 ‘먹거리’, ‘미술’, ‘수공예’ 등으로 꾸려지지만 막상 사업을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이름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신화에 갇힌 정책들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제조역량을 지녔다면, 이에 걸맞은 청년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데 오히려 관광산업으로 돌리는 등 선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적인 잘못이기보다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사업의 개발이 더디고, 성공사례를 조직하지 못한 탓입니다. 다만,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딘 속도보다 지방소멸 속도가 빠르다는 게 고민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방소멸, 청년정책 등과 관련해, 여러 칼럼을 통해 청년의 언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나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 등으로 ‘청년’과 ‘공정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태는 엘리트 게임으로 노동시장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데 주목하고, 대다수 청년이 처한 현실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일부 청년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으로 호명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봤을 때 다수 청년의 목소리는 투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졸 남성과 여성, 전문대, 지방사립대 등 다양하게 구직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방의 기업에 청년이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표준 체제를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하는 게 건전하지 않을까요.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서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가 자꾸만 소거되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청년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구조의 전환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전환, 전기차, 스마트팩토리 등). 청년 정책과 산업구조의 전환이 함께 결합될 수 있을까요.

양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전기 계통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은 수도권에, 내연기관 클러스터는 대구·경북·울산 반경으로 있습니다. 산업 전환 관련한 연구의 원천 기술은 수도권에서 개발하지만, 실제 기술로 구현하려면 동남권의 현장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에서만 궁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작업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 ‘회사의 다각화’라는 측면으로만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역의 ‘장소성’을 부각하고, 산업의 전환을 꾀한다면 역설적으로 지역에, 그리고 구직하는 청년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낡음과 새로움

지역살이와 정착

로컬리즘

HOPE

*
지역소멸

청년
*

*
지역살이

이시원
화성보통청년들
*

조혁민
들락날락협동조합
*

이정원
쉼표영농협동조합
*

CONNECT
*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만큼 청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완화를 비롯해 단순히 오래된 지역으로 치부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이야기'를 품은 곳으로 탈바꿈하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희망제작소가 지역에 '풍덩' 빠져 살아가는 청년을 칭하는 '로컬다이버'를 만났습니다.

#청년 #지역살이

전남 신안

청년의 방식으로 지역살이를 실험해요.



박현정 | 스픽스 매니저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와우마을. 청년 다섯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는 기대를 품고 ‘주체주체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안좌도는 청년이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다. 소멸 멸종에 관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사라져가는 것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찾기 위해 모인 청년들. 흔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하나 없는 ‘불모지’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만큼 ‘기회의 땅’에서 전국 각지에서 ‘플레이어’로 모인 청년이 섬살이를 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박현정 스픽스(SPIX) 매니저를 만났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불모지’가 ‘기회의 땅’으로

‘주체주체 마을’의 근황을 전해주세요.

박현정

(이하 박) 신안군 ‘청년마을’에 오신 분들을 ‘플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상상하긴 쉬운데 상상을 깨고 현실로 옮기긴 어렵잖아요. 게임처럼 거침없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 ‘플레이어’라고 부르는데 현재 각자 자신만의 베킷리스트를 실행 중이고요. 1기수는 15명이 모집되었는데, 미국, 서울, 목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이 밖에 네트워킹을 하는 ‘주체주체 필요회’, 루프탑을 조성하는 주민회의 ‘비행청년’, 공간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무단점거’, ‘브랜드 탄생기록 피칭데이’ 등을 열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 소개해주세요.

박

간판 프로그램은 ‘주체주체 한 달 살기’입니다. 안좌도에서 자신만의 베킷리스트를 이뤄나가는 건데요. 플레이어인 사진작가는 현재 저희가 머무는 ‘와우마을’(지명)의 주민 분들 얼굴을 찍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담긴

빛을 담아서요. 플레이어 한 분 한 분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게 핵심이죠.

네트워킹도 활발히 하고 있죠.

박 ‘주섬주섬 필요회’와 ‘무단점거’를 들 수 있는데요. 안좌도는 인적 드물고,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돈도 벌어야 하고, 주민과 친해져야 하고, 스스로 행복을 얻어야 하잖아요. ‘주섬주섬 필요회’는 청년들이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 도울거리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해결하는 모임이죠.

마지막으로 ‘무단점거’는 4년째 방치된 폐교에 들어가서 일종의 청년을 위한 ‘메이커스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간에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내부 소음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차음벽을 설치해 랩메이킹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분도 계셔요.

수도권보다 주로 지역에서 삶과 관계를 이어온 박현정 매니저는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지역에서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장 지역소멸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더라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 바람이 크다.

목포에서 신안으로, 안좌도로,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유

신안에 연고가 있었나요.

박 스피스가 신안에서 활동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목포를 주 무대로 활동하다가 신안을 왔다 갔다하면서 ‘동물 매개 교육’을 했거든요. 방과후교실에 앵무새와 파충류를 직접 가져가서 준비해두면 아이들이 어깨 위에 앵무새를 엎어보고 경험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신안에서 자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님과도 친해졌어요. 목포에서 신안을 왔다갔다가 이렇게 안좌도로 들어와 ‘주섬주섬 마을’을 하게 된 거죠.

수도권보다 신안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 예전부터 지역에 애착이 강했어요. 스피스는 대학 졸업하고, 남들처럼 취업하는 회사라기보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신안군이 위치한 전라남도 서남권이 지역소멸이 심한 지역 중 한 곳이잖아요. 저희가 이곳에 남아서 지역을 존속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싶었어요.

안좌도에 막상 살아보니 어떤 변화가 느껴지나요.

박 프로그램을 꾸리는 저희나 플레이어나 ‘안좌도는 생존의 영역’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더라도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렵고요. 택시도 없어요. 자연 그 자체의

환경이니까 지네에 물리기도 하고요. 도시에 비하면 확실히 많은 불편함이 뒤따르죠. 이러한 애로사항은 ‘주섬주섬 필요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토로하니까 많이 해결되고요. 무엇보다 안좌도에 온 플레이어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 신기하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죠.

안좌도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게 어땠나요.

박 외지인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목포에서 신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면을 튼 학부모님도 계셨고, 아이들도 저희를 좋아하니까 조금씩 풀어갈 수 있었어요. 전보다 학부모님을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마을 어르신도 찾아뵙고요. 어르신께 “언제 밭 나가는 날이에요?”라고 여쭤봐요. 누구나 처음부터 마음을 확 여는 건 어렵잖아요. 자주 얼굴 보고, 일손을 보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중이에요.

작은 섬마을, 작은 도시에서 청년이 삶을 꾸린다는 것

지역에서 청년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나요.

박 대개 수도권을 두고 기회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지역이 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에는 발굴되지 않은 여러 재미있는 문화와 이야기거리가 많거든요. 발굴되지 않은 지역자원을 청년의 시작으로 재해

석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게 지역을 존속시킬 수 있고, 청년이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봐요. 일종의 ‘청년의 방식’으로 지역을 이어가는 거죠.

지역에서 살아보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박 지역에서 청년이 원하는 건 정말 다양해요. 다만 원하는 걸 모두 누리긴 힘든 현실이죠. 단번에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순 없어도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여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좋겠다 싶었어요. 청년운영협의회가 있다든지, 지역에서 청년 초기 정착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요.

‘주섬주섬 마을’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박 주섬주섬 마을이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상상하는 것이 이상한 사회에서 상상하기 위해 모인 이상한 마을이라고 소개하거든요. 플레이어 중 독특한 청년들이 많아요. 요새 ‘N포세대’라서 상상하는 걸 포기하는 게 당연시하잖아요. ‘주섬주섬 마을’은 상상을 실현하고, 즐거운 소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박현정 매니저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이루고 싶었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전남의 섬의 섬의 섬에 들어와서 꿈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꺼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 무엇 하나 쉽게 얻는 건 없지만, 손때 묻은 공간을 만들어가며 ‘지역 정착’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

경기 화성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웃과 ‘기후위기’를 논해요.



이시원 | 화성보통청년들 대표

‘화성보통청년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다. 경기도 화성 봉담읍에서 평범하지 않은 실험을 벌이고 있다. 이시원 대표는 기후위기나 불평등처럼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이슈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무겁게만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대표의 입에서는 ‘일상’, ‘삶’, ‘소소한’, ‘관계’라는 단어가 자주 흘러나왔다.

요즘 근황을 소개해주세요.

이시원

(이하 이) 대학교 재학 중인데 활동과 병행하니까 힘들어서 휴학했어요. 휴학하고 무엇을 할지 찾아보고 정리하고 있어요. ‘화성보통청년들’의 첫 프로젝트인 ‘기후위기학교’를 마무리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꾸려갈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현재 활동 중인 ‘화성보통청년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

저는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실무자, 감사, 자문 등 구성원이 총 11명입니다. 화성의 페어라이프센터와 모모책방에서 활동을 많이 지원해주고 계세요.

‘화성보통청년들’의 첫 시작을 말씀해주세요.

이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3년간 이어오다가 ‘화성보통청년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이 당면한 과제이고, 그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청년이 많은데 도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무언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는 게 1차 목표였어요. 일상과 삶을 나누고, 공부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죠.

지금 화성에 살고 있죠. 어떤 곳인가요.

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 중이라 화성에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요. 화성은 일종의 불모지예요. 문화시설이 거의 없고, 사람들도 2~3년 살다가 삶이 나아지면 떠나는 곳이거든요. 서울과 화성을 오가면서 지낼 때 그 격차를 많이 느꼈죠. 대학에서 환경 동아리를 하면서 각종 프로젝트와 워크숍을 열었는데 왜 지역에서는 이뤄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로웨이스트를 하려고 해도 화성에서는 대나무 칫솔을 사러 서울까지 2시간을 가야 하는 거죠. 지역에서도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했고,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화성보통청년들’은 기후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이 ‘45일 실험실’은 페어라이프센터와 함께 주최한 프로젝트인데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통해 고체비누 만들기 등 워크숍을 하면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해왔어요. 2021년에는 제로웨이스트 팝업샵을 열었고 지구의 날(4월 22일)부터 환경의 날(6월 5일)까지 45일간 지구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약속을 정하고 함께 실천하며 공유하는 실험을 벌였어요.

‘45일 실험실’을 해보니 반응은 어땠나요.

이 사실 팝업샵을 오픈하면서도 과연 화성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이 참여했어요. 기존에 관계를 맺지 않은 분들과도 새롭게 연결되었고요. 장년층은 ‘제로웨이스트’, ‘팝업샵’ 등의 단어를 잘 모르셨는데 쓰레기, 기후 문제를 하나씩 설명드리니까 나중에는 친구들을 데려오셔서 이것저것 먼저 설명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환경 문제가 이웃과 나누니까 가깝고, 변화를 느끼게 됐다고 하시는 데 참 뿌듯했어요.

화성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청년네트워크

지역에서 ‘화성보통청년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화성보통청년들’은 화성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잖아요.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표하세요. 가는데마다 ‘힘이 된다’, ‘기특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왜냐



면 다른 지역의 마을 활동가분들을 만나면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걱정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화성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청년 스스로 키워드를 갖고 움직이는 게 힘이고, 희망이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화성에서 최초로 판을 열면서 힘든 지점은 없었나요.

이 많은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요. 수용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 내 환경학회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어떤 문제에 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든 사람에게 설명해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지칠 때도 있지만, 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 소외가 존재하는 지역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동네의 언어로 말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역 기반으로 활동 중인데,

청년에게 필요한 자원이 하나씩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달래님 얘기가 생각나요. 달래님과의 인연은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으로 시작됐어요. 공예 활동을 열고 싶어서 SNS를 통해 달래님의 ‘양말목 공예’ 계정을 팔로우했는데 동네 분이셨어요. 무작정 메시지를 보내 섭외하며 관계가 이어진 경우죠. 달래님과 공예를 비롯해 비건 다이닝, ‘아무튼 비건’ 토크쇼를 함께 열었어요. 달래님이 저희와 활

동하면서 화성에 연고가 없는데도 지역에 남길 선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 중 하나가 일자리와 주거 문제더라고요. 지역과 활동에 관한 열망이 있지만, ‘열정 폐이’로 활동하거나 주거,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현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청년에게 생계는 필수 조건

청년이 지역에 남길 원해도 일자리와 주거는 가장 큰 문제죠.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고자 하는데도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워요. 지역에서 활동가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회적 경제나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움직일 때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 있다면 어떨까 합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관계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하는 거죠.

수도권에 여전히 머무는 청년에게 지역은 어떤 기회일까요.

이 청년들은 대부분 거점 위주로 생활하잖아요. 지역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블루오션과도 같아요. 서울에서 이미 많이 했던 모임이지만, 화성에서 모임을 열면 ‘최초의 일’이 되거든요. 지역에서도 청년의 움직임을 갈망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청년이 직접 살아볼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많으니까 충분히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의제에 관심이 있나요.

이 지금까지 기후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청년의 주거 문제에도 관심 있어요. 지역에서는 ‘청년의 주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하는 의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주거 불평등이 기후위기와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거가 열악할수록 기후위기에 노출되는데, 기후 불평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러한 지점에 대한 의제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 지역소멸과 청년이란 주제를 생각해보면 서울에 집중된 활동이 그 외 지역에 고루 퍼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서울에 살고자 하는 청년도 있지만 내가 살았던, 혹은 살고 싶은 지역에 문화적 인프라가 있다면,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 할까 싶거든요. 실제로 전 서울에서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을 지역에서 실행해보면서 화성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소소한 변화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각자에게 재미있는 일들을 펼칠 수 있길 바라요!

이시원 대표는 인터뷰 내내 밝고 가벼운 에너지를 뿜어냈다. ‘지역 소멸’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대하면서도, 오히려 그 지역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과 무언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긍정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이 대표가 화성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떠한 실험의 시간으로 남을지 기대된다.



충남 금산

**나를 응원해주는 비빌 언덕,
‘공동체’가 중요하죠.**

**조혁민 |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이사**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은 ‘연결’의 확장을 몸소 보여준다. 금산 청년네트워크 모임이었던 들락날락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자립학교를 운영하다가 2018년 겨울의 끝자락 ‘협동조합’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혔다. 인구 5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 충남 금산에서 청년들은 작당을 벌이고 있다. ‘청년’, ‘지역’,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삼아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로 밥벌이하는 청년 공동체를 표방한다. 대전에서 살다가 7년 차 금산에서 터전을 일구고 있는 조혁민 이사를 만났다.

금산에 연고가 있었나요.

조혁민

(이하 조) 아뇨. 금산에서는 간디학교 졸업했고요. 청년 모임 형태로 들락날락 활동하다가 2018년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현재 축제·문화 예술 피리를 맡고 있어요.

들락날락 구성원 모두 간디학교를 나온 선후배 사이죠.

조

구성원 모두 20대지만, 학교 졸업 연도로 치면 차이가 나죠. 제가 막내뻘이는데, 서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어서인지 편하게 소통하는 편이고요. 물론 어긋날 때도 있죠. 약속을 어기거나 서로의 우선순위가 다를 때가 있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는 어느 조직,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들락날락의 활동 영역이 넓더라고요.

금산에서 아랑곳(청년자립학교), 공론장, 쉐어하우스, 집회점, 동네서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던데, 어떻게 꾸려가고 있나요.

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다 보니 서로 업무가 겹치거나, 일손을 도와주며 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를 딱 잘

라서 나누진 않죠. 오히려 협업이 많은 편이에요. 5명의 피리가 기획단처럼 전체적인 기획 및 회의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 및 과정 등을 설계하고 실행해요. 내가 동네서점인 ‘두루미책방’을 운영하는 피리이지만, 여우잡화점 일을 도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회의해야 해요. 결정하는 게 쉬워 보여도 이왕이면 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어 결정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편이죠.

청년, 지역, 문화예술의 미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죠.

조 맞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축제 기획, 디자인, 두루미 책방, 잡화점, 주민 워크숍, 학생 수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는 게 ‘셰어하우스’예요. 금산에서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밖에도 젠더 부문 관련해 여성정책거버넌스 활동도 별이고 있고요. 멘토-멘티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다른 청년의 역량을 개발, 육성 하려고 해요.

청년으로 구성된 들락날락, 지역·민과의 연결을 꾀하다

지역이 기반이니까 주민과의 연결고리도 넓혀가고 있겠네요.

조 축제를 기획하지만, 저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인과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축제를 운영하면서 몇십 년 금산에서 터전을 잡은 주민들과 계속 만나는 지점이 생겼어요. 과거에 들락날락의 멘토님이 저희와 선주민, 원주민

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젠 저희도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죠. 원주민, 어르신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요.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니까 사용하는 방법, 이미지를 내려받거나 유튜브 생중계를 대화창으로 보내고, ‘좋아요’를 눌러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하죠.

지역에서 관계 맺는 일 자체가 어렵지 않나요.

조 서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르신, 부모님 모두 바라보는 게 다른 게 있죠. 시장 상인과 협업을 많이 하는데요. 가게를 비우면서까지 축제에 에너지를 쏟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시곤 해요. 그래도 축제의 주체는 가게 주인이라는 주체 의식을 갖도록 서로 노력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라면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피드백을 주시고요.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금산에 남기로 한 이유, 나의 가치관을 나눌 수 있다면

**들락날락 구성원이 청년 위주잖아요,
금산에서 청년은 어떤 역할을 있다고 보세요.**

조 청년이 지역에 오면 좋은 건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청년은 무언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매개체거든요. 지역에 청년이 산다는 건 새로운 생각을 지닌 사람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맞이할 수 있겠죠. 이들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요. 청년은 원주민에 비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쉽기에 새로운 연결을 기대할 수 있죠.

지역에 남기로 한 계기, 결정적 계기가 있었나요.

조 스무 살 초반에는 부산에 연고가 있었어요. 연극 극단이 있었거든요. 부산으로 갈까, 금산으로 갈까 하다가 무언가를 좀 더 만들어볼 수 있는 지역을 택했어요. 그런 점에서 금산이 매력적이었죠. 특히 아는 사람, 비슷한 생각, 비슷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근처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어요. 공동체를 꾸려가고자 하는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고, 협동조합을 하면서 금산에 대한 애착이 더욱 생긴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조 공동체요. 내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해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지만, 내

부 구성원과의 비슷한 가치관이 원동력으로 작용하죠. 서로 실수를 감싸줄 수도 있고, 일을 해쳐나갈 때 서로 힘을 주기도 하고요. 우스갯소리로 ‘너 때문에 일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동료와 공동체가 있으니까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도 친구들이 응원해주는 것. 마음의 비밀 언덕이 있다는 게 가장 크죠.

**지역에서 살아보니 청년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조 학교 밖 청년이 지역에 남는 방법을 고민하는 연구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10대, 20대 초반, 20대 중반까지 각기 원하는 게 달랐어요. 공통적으로는 친구, 집, 배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이 기저에는 밥벌이가 따라오죠. 그렇다고 ‘밥벌이’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행정에서는 지역 공장에 일자리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하고 싶은 일로 하는 밥벌이가 중요하거든요. 청년이 지역에서도 하고 싶은 일 분야의 밥벌이를 탐구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해요.

지역소멸 속 지역만이 가진 기회는

수도권에 머무는 청년에게 지역은 어떤 기회인가요.

조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요. 하지만 청년이 없기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죠. 모든 곳에서 경력자를 원하잖아요. 20대 초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력을 만들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데, 지역에는 사람이 없으니 경력을 쌓기에 좋죠. 연극, 축제 기획 등의 크고 작은 경험이 밥벌이로 이어지고,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밖에 공기가 좋고요. 자연도 좋고요. 좀 더 지역 주민과 만났을 때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치고박고 싸워도 다음날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진행 중이지만
체감하기 어렵잖아요.**

조 여러 지역에서 청년정책을 시행하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과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오히려 단체에 주어지는 정책이 적을 때가 있어요. 청년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주체이고,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사업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역으로 오기 전, 알면 좋을 내용이 있나요.

조 지역의 어르신이 생각보다 언어에 서투르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본심은 아닌데, 어긋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러한 모습을 내 뜻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죠. 그리고 준비

하고 지역에 와야죠. 바로 지역에 와서 생활하고 생각하기보다 지역에 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거죠. 의외로 그냥 오셔서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다가 결국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다시 떠나기 쉽더라고요. 오히려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일수록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조혁민 이사는 ‘지역’과 ‘공동체’의 연결점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원주민과 외지인, 청년과 어르신, 사업 주체와 지자체, 개인과 공동체 등. 서로 다르기에 ‘교집합’을 찾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서로 제대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넘지시 강조했다. 나의 칸막이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지역살이의 첫 단추가 아닐까.



경북 문경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죠.



도원우 | 리플레이스 대표

경북 문경시는 29년 뒤 소멸 위험에 놓인 곳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문경은 전국 시 단위 지역 중 3위(2020년 기준)에 올랐다. 문경시의 인구는 7만 1000명 수준이지만, 한옥 카페에 8만 명(2020년 기준)이 다녀갔다. 산양면에 위치한 리플레이스의 '화수현'이다.

'화수현'에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듯 때로는 마을행사에 방문한 마을 주민들로 북적인다. 리플레이스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한다. 로컬 플레이어로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있다. 청년 혼자서도, 마을주민 혼자서도 살 수 없는 법. 서로 함께 복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법을 찾는 도원우 리플레이스 대표를 만났다.

문경에서 시작한 본격적인 지역살이

문경에서의 활동 근황을 알려주세요.

도원우

(이하 도) 2017년에 경상북도 유턴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을 시작으로 문경에서 '리플레이스'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지역살이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한옥 카페를 열 생각이었나요.

도

처음엔 청도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생각했어요. 청년정책이나 제도의 배경을 이해한다기보다 3천만 원 지원금을 목표로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소개를 듣는 과정에서 지역소멸을 인식했고,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의 문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끔 해볼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했어요.

도원우 대표는 사업 소개를 듣고 나서 책 <지방소멸>을 찾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지역의 심각한 인구유출과 유류자원과 공간이 눈에 띄게 많은 걸 실감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상생의 기회를 엿봤다.

리플레이스의 처음과 지금 어떤가요.

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사회적가치보다 지역에서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 노력했어요. 도시에서는 경쟁 대상이 많다 보니 경쟁우위에 섰다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기회도 충분하지 않잖아요. 문경에서 활동을 하다보니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리플레이스의 존재 이유를 고민했죠.

구성원도 늘었겠네요.

도 처음 함께 시작했던 창업 멤버들 모두 함께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곤 하는데, 소개를 통해서 문경에 계신 분들을 영입해서 구성원이 더 확장된 상태입니다.

특별히 문경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도 6개월 정도 경북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역의 유휴자원공간을 발견했어요. 공간을 비롯해 많은 가능성을 보려고 했죠. 지자체, 지역 활동가, 지역주민 등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려있는지를요. 이 과정에서 문경마을 주민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 지역이라면 정착할 수 있겠다’하는 결심이 섰습니다.

지역살이의 재발견, 효율성과 관계성

문경에서 리플레이스 사업체를 설립하고, 한옥 카페 '화수현'을 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결과 '지역소멸 위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삶의 방식도 한꺼번에 바꿔야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게 도원우 대표의 전언이다.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도 제가 성격이 무딘 편이라 지역에 왔다고 해서 삶이 크게 변한 거 같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지역에서 살면 어떤지, 좋지 않은 점을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취미생활을 즐길 공간이 부족해도 공허함을 크게 느끼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역에 살아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도 지역의 효율성이죠. 대구에 살 때 영업 분야에 종사했어요. 당시 이동할 일이 잦아 도로에서만 4~5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미팅가는 길에 에너지가 소진되기 마련이었고, 제 인생의 2할은 도로에서 이동하는 데 쓸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지역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지역에서는 같은 거리를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공간이 가까워진 만큼 만나는 사람도 다르죠.

도 도시에서 지낼 땐,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칠 때가 있으면 쉽게 차단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관계를 더 지속가능하게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요. 이밖에 자연도 너무 좋고,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도 많아요. (웃음)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반대로 지역살이의 어려운 지점이 있나요.

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르신이 많아요. 어르신에게 더 다가가면서 어려움을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수현 음료 할인쿠폰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죠. 마을 안전을 함께 이야기하고, 진행과 서기 역할을 도맡아 하기도 하고요.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입학 및 졸업 때마다 선물을 준비하기도 해요.

청년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나요.

도 청년은 지역에 잠재된 자원을 발굴해 콘텐츠로 만들고, 그 콘텐츠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배제하고 콘텐츠를 만든다면 그것이 '지역민이 원하는 콘텐츠'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봐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로컬크리에이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의 역할도 살펴봐야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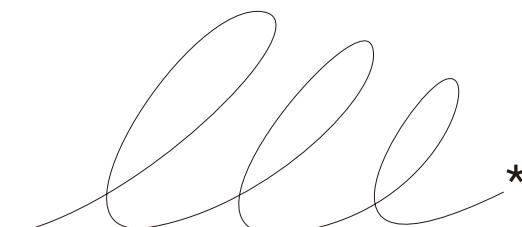
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거지입니다. 예상외로 수도권과 지역의 주거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정부는 주거 문제를 공공쉐어하우스 운영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해요. 재정적인 생애주기를 보았을 때 플레

이어가 2~3년간 협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서면서 지역살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도 생각보다 지역에 ‘플레이어’가 많아요. 문경에 리플레
이스 구성원 말고도 플레이어가 많아요. 플레이어끼리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
면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죠. 협업을 통해 일자리와 같이 경
제적 창출이 되고, 로컬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질이 올라갈
것이라 봅니다.

도원우 대표는 ‘숨은 색깔’을 찾아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폐가였던
한옥을 재발견하고, 죽은 유휴공간에 숨을 불어넣는다. 지역 어르신의
걱정스러운 시선에는 되려 먼저 말을 붙이고, 작은 축제를 열며 ‘새로운
경험’을 나눈다. 도원우 대표와 리플레이스의 ‘지역의 사랑법’이 아닐까.



경북 상주

지역 청년에게도 삶은 흘러갑니다.



이정원 | 쉼표영농협동조합 대표

서울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계신 상주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한 이정원 쉼표영농협동조합 미녀농부 대표. 농사와는 무관했던 부모님이나 지인들은 정원 씨를 향해 걱정 어린 시선을 던졌다. 이정원 씨는 인터뷰 내내 '밥벌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서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다. 농부로서 안착하기 위해 세 시간씩 쪽잠을 자며 '밥벌이'를 했고, '밥벌이'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나의 밥벌이,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꿈꾸다

지난 2019년에 만난 뒤,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이정원

(이하 이) 잘 지냈고요. 변화가 생겼다면, 올해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여전히 농사를 열심히 짓고, 교육도 하고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과 같이 모여서 견학도 가고, 프로그램도 열려고 했는데 무산돼 아쉬워요. 청년 농부와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과 같이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주춤했다고 하셨지만,
책 <파밍테라피>도 출간하고 바쁘게 보내신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이

2015년부터 농사지으며 경험한 내용을 묶어 작년에 출간했어요. 농사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에세이 형식이었다면 본격적으로 '파밍테라피'에 관한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입니다. 경북대 평생교육원에서 '파밍테라피'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뜻하지 않게 농산물이 버려질 때가 종

종 있잖아요. 벼려진 농산물로 체험이나 만들기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는 거죠. 이밖에도 농촌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셔서 작년부터 <농민신문>에 제가 농사를 하면서 겪은 제도적 혹은 일상적 문제를 칼럼으로 연재하고 있어요.

‘파밍테라피’라는 말이 색다르네요.

이 ‘치유 농업’이라는 말이 있지만, 주로 체험 위주잖아요. 제가 대학 때 심리학을 전공했고, 현재 운영하는 쉼표영농조합의 의미도 ‘몸도 마음도 쉬어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2015년 첫 시작부터 ‘치유’에 중점을 뒀던 거죠. 농업도 일종의 휴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심리적, 정신분석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생리적, 정서적 부분을 농업과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실제 우리 몸은 어떤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활동할 예정입니다.

거의 6년째 지역살이, 농촌살이를 하셨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역에서 관계를 과정도 달라졌나요.

이 상주가 고향이지만, 좋은 것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의 주민이나 어르신과의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초기만 해도 서로 눈치를 보거나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젠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시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대하는 듯하며 편하게 지내죠. 반면, 도시에서는 이웃과 보지 않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농촌에서는 많은 사람과 마주해야 해요. 얼마 전에 택배 물류 관련해 업무 차질이 자주 벌어졌는데, 이곳에서는 업체가 달라도 알음알음 아는 관계이니까 거래처를 바꾸는 일조차 쉽지 않죠.



지역에서 청년으로서 잘 살 수 있는 조건은

청년이 지역에서 농업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이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상주도 집값이 오르거든요. 불과 2014~2015년에는 30평대 아파트가 1억 원 중반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3억 원이 넘어요. 지역에서 보면 오르는 게 크게 체감되죠. 청년이 농지를 구할 땅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집을 구하기도 어렵죠. 특히 농촌에 사는 청년은 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공공주택,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 청년에게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농업 청년 중 남자의 경우 군 복무 대신 농지를 사서 3년 간 농사를 지으며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100평으로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림부에서 2~3억 원씩 대출을 해주는 데 10년 동안 상환해야 해요. 20대 초반에 2~3억 원의 빚을 갖고 삶을 시작하는데, 이게 또 자산으로 잡혀 임대아파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처지죠. 빚밖에 없는 청년이 대출금도 갚고, 이자를 내야 하고, 형편이 어려운데 주거 정책에서 농업 청년은 뒷전인 거 같아요.

또 원주민 청년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농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귀농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지역

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귀농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데, 외지에서 온 청년과 원주민 청년 간 혜택의 차이가 분명하죠.

수도권에 여전히 머무는 청년에게 지역은 어떤 기회인가요.

이 수도권 청년에게 지역은 하고 싶은 걸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지 않을까요. 연고가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면 ‘누구네 집 아들, 딸’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거든요. 저도 농사 시작했을 때부터 농사의 니은자도 모르는데 왜 농사를 짓냐는 얘길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상주에 오면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있겠죠.

수도권과 지역에서의 격차는 무엇에서 느끼나요.

이 격차를 잘 못 느끼겠어요. 도시에 살던 청년이 농촌에 오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얘길 자주 하는데, 사실 도시에 살아도 집 앞에 바로 극장이 있는 게 아니고, 30분은 이동해야 하잖아요? 지역에서 서울만큼 많지 않아도, 3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극장도 있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격차를 잘 못 느껴요.

오히려 여유로움이 있죠. 출근할 때 사람한테 치이지 않고, 삶이 윤택해지는 건 확실해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죠. 서울에서는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급하게 먹고, 봄비는 인파를 뚫고 가고, 자연이나 풍광을 보려면 뭔가 꾸며진 공간



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눈만 돌리면 강이고, 들이고, 산이니까. 항상 자연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청년 활동이 지속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원주민과의 융합이 중요해요. 일단은 원주민과 융합하는 것과 자기가 먹고 살 것에 대해 지원사업이 아니라 실제 먹거리를 고민하고,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게 맞죠. 예술인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지역에서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여유로우면서도 밥벌이를 할 수 있죠. 거주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만 해결

된다면, 오히려 서울보다 자기만의 밥벌이를 할 수 있고, 정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지속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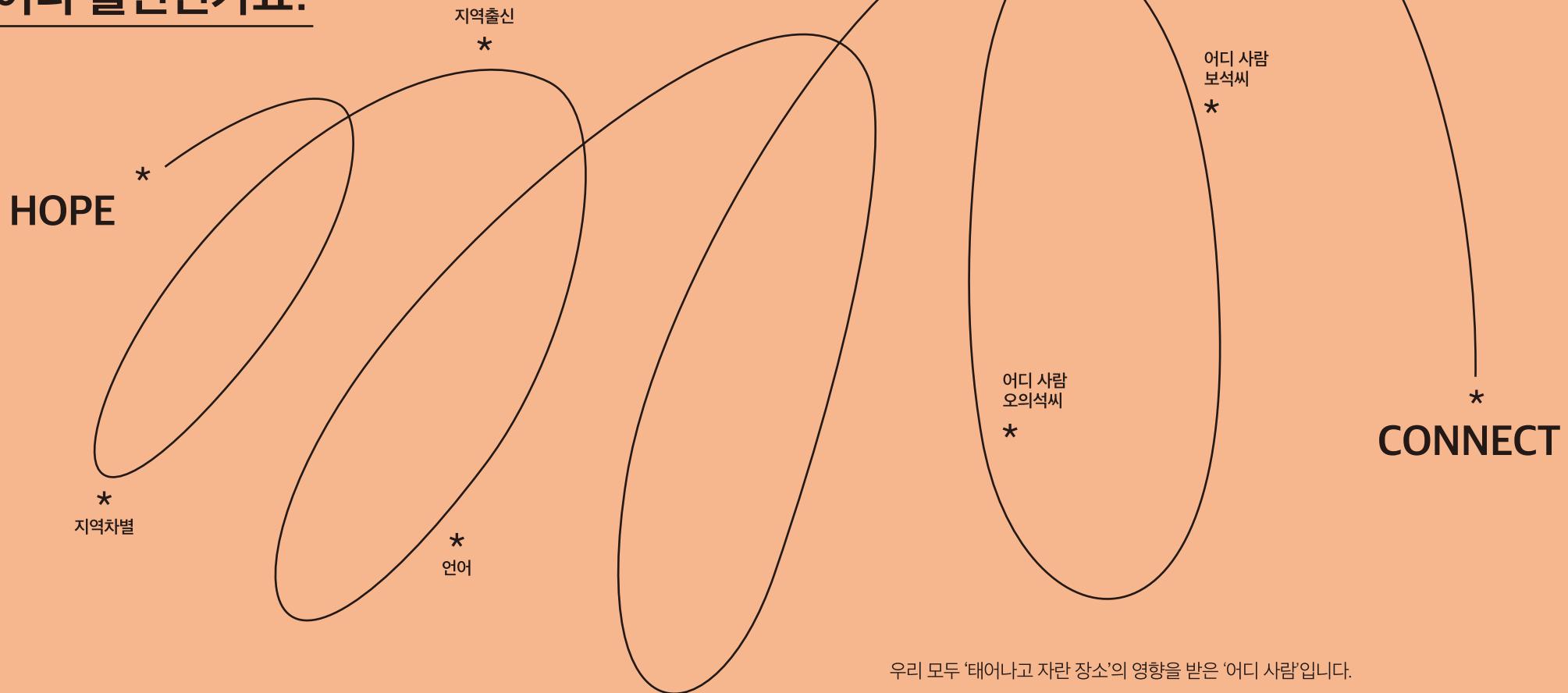
이 지역과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저나 주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닥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역소멸과 함께 인구절벽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개 가임기 여성으로 그 수치를 보던데, 사실 청년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덜컥 애부터 낳을 수도 없고요. 일자리, 주거에 이어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한 것 모두 청년 문제라는 데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출산 및 육아의 격차 없이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될 때 지역의 삶도, 인구소멸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정원 대표는 청년으로서 겪는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지역살이를 하는 원주민 청년과 이주민 청년 간 정책 불균형에 가웃거렸다면, 이제 가정을 꾸린 청년으로서 겪는 빈틈을 이곳저곳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다. 어느 곳에 살든 청년의 삶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이들의 삶이 지역에서 머물도록 하려면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에 살아요?

어디 출신인가요?



우리 모두 ‘태어나고 자란 장소’의 영향을 받은 ‘어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 또한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방인’이자 ‘소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자원의 불균형뿐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거나 살았다는 이유로 겪은 차별과 시선은 일상 곳곳에 깊숙이 파묻혀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진행한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프로젝트 ‘어디 사람’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지역차별과 언어를 되짚어봅니다.

#지역차별 #언어

양산에서 부산, 다시 서울로

지역차별은 지역에 살면 누구나 느껴봤을 겁니다.



민자·현정 |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 참여자

김민지 씨(가명)와 이현정 씨(가명)는 경남 출신으로 양산에서 학창 시절을 공유한 친구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터를 잡아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지역 차별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르다. 대학교 오리엔테이션(OT)에서, 취업을 앞둔 면접에서 두 사람이 느낀 감정과 경험은 차이와 차별의 중간에 있다. 일상의 순간, 삶의 중요한 지점에서 '어디 사람'이라서 겪은 김민지 씨와 이현정 씨를 만났다.

지역 차별? 지역 차이?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현정 (이하 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는 경남 부산 지역 거주 중입니다.

민자 (이하 민) 울산 울주에서 태어나 양산 통도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해 작년부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요.

지역차별 언어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나요.

민 지역성에 관해 부정적이지 않아요. '지역 차별'이 아닌 '지역 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지역에서 서울로 오고 나서 이 차이를 역이용해 사람들과 더 빨리 친해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세대 중에 한 지역에서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왕래가 잦기 때문에 '지역 차별'이라는 개념은 지나온 개념, 혹은 지나가고 있는, 혹은 저절로 해소되는 개념이 아닐까 싶었어요.

지역 차이를 역이용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민 대학 진학하며 서울에 처음 왔는데,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겁이 났어요. 신입생 때 어떻게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사투리를 일부러 티 나게 쓴 것도 있죠. 그러면 “너 사투리 쓰네, 어디서 왔어?”라며 한 번이라도 말을 걸더라고요.

면접에서 사투리를 고치는 게 낫지 않아?!

한편 지역에 산 사람이라면 지역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직접 겪은 경험이 있나요.

현 취업 준비 시절 얘기인데요. 본사는 서울에, 지사는 지방에 있는 회사였어요. 지방에서 근무하지만, 면접은 서울에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취업 스터디에서 면접을 준비하는데 한 팀원이 “면접에서 표준어를 쓰는데 혼자 억양 있는 말을 쓰면 튀어 보이니,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투리를 쓰면 튀니까 좋은 인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억양의 고저를 없애려고 연습한 뒤 면접을 봤죠. 결론부터 말하면 면접관은 모두 서울말을 썼지만, 면접 참여자들은 모두 사투리를 썼어요. 상대적으로 튀어 보이지 않았지만, 당시 팀원의 그 말을 의식한 게 지역차별 경험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해요.

민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친구들이 “너 화났어? 괜찮아?”

라고 계속 묻거든요. 억양과 뉘앙스가 화가 난 것처럼 느꼈지나 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사전에 “나 화난 거 아니야”라고 해명하고 말을 시작해야 하죠. 또 다른 경험은 20대 내내 서울에서 지내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서울말을 사용했어요. 사람들과 한참 이야기하다가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면 “너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괜히 좋아하더라고요. 문득 “내가 왜 이걸 좋아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별인지 돌아보기도 했죠.

서울은 문화 생활하기 좋은 곳?

민 지역에 살고 계신 엄마가 생일날 베스킨라빈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쿠폰을 받으면, 대부분 저나 동생한테 보내주셨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1시간 밖으로 갈 수 없잖아요?



수도권 안에서도 차별은 있다

현 실제 서울에 상경한 친구들과 대화하면 다섯 명 중 다섯 모두 서울에 정착할 거라고 말해요. 문화생활과 결혼 후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서는 극장과 미술관을 갈 수 있고 하길래 ‘(부산에도) 영화관 있고, 벡스코도 있으니 여기서도 즐길 수 있는데?’라고 되물으니 ‘그래도 다르다’라는 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민 ‘시골’이 도시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놀란 적이 있어요. 시골이라도 부농인 분들이 많거든요. 반면 도시에 살아도 아르바이트하면서 20~3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시골과 도시를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현 지방에도 좋은 시설과 교육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왜 꼭 서울을 ‘정답’, 혹은 ‘목적지’인 것처럼 말할까 싶어요.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친구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든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차별은 처음부터 차별이 아니고, 편견이 쌓여 차별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민 서울에 살다가 수도권 A 도시로 왔는데, 해당 지역 사람들 스스로 A 도시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A 종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요.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을 향해 ‘아~ 진짜 A 종특이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사실 A 지역에 오기 전만 해도 잘 몰랐는데, 타 지역 친구한테도 많이 A 지역에 관한 얘길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편견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A 지역에서 출산할 계획을 세우려니 지역 분위기가 괜히 무섭게 느껴지고, 아이를 키워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동생이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 사람들은 지방대는 죽어도 가기 싫어했어요. 차라리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을 가지.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라도 지방대는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죠. 국립대를 갈 정도여도 서울의 다른 사립대를 간다고 하는데, ‘지방에 가면 인생이 망한다는 것인가?’ 싶었어요. 똑같은 대학, 커트라인, 교육과정이고, 경기 지역 캠퍼스의 시설이 더 좋은데도 졸업장에 ‘어떤 지역’이 찍히면 취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서울 대학이 중요하다는.

차이를 알아야 차별이 보인다

이 문제를 인지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현 타 지역 사람과 교류하며 (차별을) 인식했다면 반대로 서로 교류하며 좁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개인도 좋지만 정부, 회사 차원에서도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해요.

민 차별과 차이의 기준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도,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는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지역 감정이 나쁜 경우보다 오히려 지역 별 차이를 이야기 나누거나, 지역에 대한 인식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후 유튜브나 도서에서도 비슷한 콘텐츠가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대중적으로 유행이 일어났다는 건 니즈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역에 관한 인식도 차츰 좋아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처 몰랐던 차별적 상황을 인식시키기보다 요즘 세대에게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요. 너무 전투적이고(?), 강건한 자세, 마음가짐, 또는 집회처럼 꼭 ‘진지한’ 형태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 아, 제주도 택시기사 분에게 제주도 사투리 대회가 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각 지역의 사투리나

문화를 사랑하는 대회를 하는 건 어떨까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면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부터 차별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지 씨와 현정 씨는 서로 지역 차별에 관한 생각이 달랐지만,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공통적으로 일상에 묻혀있던 차별을 발견했다.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성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계몽적인 방식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공감하는 듯했다.

안산에서 시흥, 다시 서울로

지역차별언어는 나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죠.



오의석 |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 참여자

수도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30대 오의석씨는 차별을 겪은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면서 돌아켜본 과거 속에서 '지역 차별의 시선과 말'을 발견했다. 학교 선생님, 이웃에게 들었던 '그 언어'는 청년 시기의 오씨를, 더 나아가 그 지역에 관한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청년들과 함께한 지역 활동을 통해 지역차별을 줄이는 새로운 가능성은 엿보기도 했다.

어디서 나고 자랐나요.

오의석

(이하 오) 인천에서 태어나 부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부산과 김해에 살다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안산과 시흥에서 오래 거주했죠. 성인이 된 후로는 줄곧 서울과 시흥을 오가다가 5년 전에 베트남에서 파견근무로 2년가량 살았고,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셨네요.

혹시 거주한 지역에 관련해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오

사춘기 시절을 안산과 시흥에서 보냈어요.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를 두고 '사건·사고가 빈번한 우범지역'이라는 편견이 있어요. 안산을 두고 '안산안드레아스'라고 말하는 걸 듣기도 했는데요. 그게 온라인 총격게임의 가상 배경인 '산 안드레아스' 주(州)를 빗댄 말이거든요. '산 안드레아스'를 배경으로 총싸움 게임을 벌이는데, 마치 안산에서는 자주 폭력이 발생할 거라고 해서 붙여진 말이죠.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오 시흥은 근처 산업단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곳인데요. 시흥에 ‘시화호’가 있는데, 근처 산업단지의 오·폐수로 인해 악취가 났고, 밤에 냄새가 더욱 심하게 났어요. 주변에 많은 공장에서 매연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환경으로 시흥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저처럼 시흥에 거주한 사람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사냐, 공장이 있는데”라는 식의 편견 섞인 이야기 들은 적도 있어요. 이런 편견이 지역의 패배 의식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종의 지역차별 언어네요.

오 내가 사는 지역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인지 이러한 편견을 차별이라 인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편견을 내면화하고 묵인했죠. 한 번은 중고등학교 때 타 지역에서 순환 근무 온 교사로부터 “부모님이 이러니까, 너희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내 사람들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일상의 차별 언어 경계선

지역차별언어가 꽤 많은 영향을 미친 셈이네요.

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역차별언어가 증폭하는 걸 체감했어요. 단원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는 지역은 안산에서도 평균 가구 소득이 높지 않은 동네죠. 이를 두고 “어차피 저 학교 졸업 해봐야 공장밖에 못 가는데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이야기 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기준에 안산시 내 특정 지역에 존재 하던 차별적 시선과 언어가 세월호라는 사회적 참사와 연결되면서 지역 내·외부에서 또 다른 차별언어로 증폭되더라고요.

지역 혐오와 차별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 사실 일상에서는 차별이 만연해 ‘이게 차별이지’라고 그때그때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막상 차별언어를 쓰지 않으려고 해도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평소 차별적 표현을 쓰는 데 조심하는데,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서울이고, 상대 팀이 바닷가에 있는 지역팀이라면, 해당 팀에게 “짠 내 난다”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선까지 표현을 가려서 써야할지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개인적으로 상황적 맥락에서는 지역 비하의 의미를 담지

않고, 지역의 개성을 살린 표현으로 중립적,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 없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담아 출신지를 알리려고 하는 의도라면 귀엽게 볼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다만 안산처럼 사회적 아픔은 겪은 곳에 상처를 건드리는 언어는 절대 쓰지 말아야죠.

지역 자존감↑ 지역차별 민감도↑

지역차별이 만연하지만,

이를 지적하는 현상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언어는 다른 문제 중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여성 혹은 성소수자 문제의 경우 피해자가 명확하지만, 지역 차별은 내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가해자일 수도,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차별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만큼 우리 일상에 스며든 게 아닐까요. 지역차별이 손쉽게 휘두를 수 있는 도구이자, 소재가 된 거죠. 지역에 대한 외부의 차별적 평가에 순응한 나머지, 지역과 나의 연결고리를 약화해 인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고치려는 의지가 생기는데 말이죠.

지역차별과 지역차별언어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 시흥에 살 때 동료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주민의 서명을 모아, 주민참여형으로 발의한 ‘청년기본조례’를 통과시키는 활동이었는데요. 조례 당사자인 청년운동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통과돼 반향을 일으켰어요. 당시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은 시흥에 대한 연고의식이 없었어요. 시흥을 ‘탈출해야 하는 곳’으로 여겼고, 결국 서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신의 활동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니까 ‘시흥을 위한 일=나를 위한 일’이라고 여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흥에 있으면 뭐 하냐”라는 편찬에도 그 친구는 “시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답하는 걸 보고,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질 때 나의 고장을 좋아하는 마음, 우리 지역을 비하하는 언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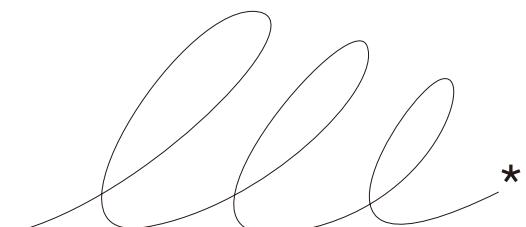


서로 섞여 알아갈 때 차별이 없어진다

지역차별언어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오 사실 지역차별언어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기보다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과거의 제가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던 때가 있었거든요. 당시 몇 년간 장애인과 함께 서로 섞여서 살면서 저도 모르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줄일 수 있었어요. 오히려 ‘장애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냥 ‘휠체어를 타는 사람’, ‘조금 느린 사람’으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희미해질 정도로요. 마찬가지로 지역차별언어 해소도 결국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을까요. 지역별로 서로 섞여서 만나며 알아가는 기회가 많아지면 어떨까요. 서로 살았던 지역적 차이에 관해 자연스레 이해하고, 나도 모르게 했던 차별을 인식하면 지역차별 언어나 상황을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의석 씨는 인터뷰 내내 자신이 겪은 크고 작은 경험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자신도 모르게 익숙하게 순응했던 언어와 상황 혹은 고개를 가웃거리게 만든 언어와 상황을 복기해나갔다. 그리고 ‘당장 차별을 없앨 수 있다’라는 선부른 선언보다 개인의 경험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음을 던졌다.



창원에서 서울, 그리고 지리산으로

사투리를 고쳤다고 하면 왜 칭찬을 할까요.



보석 |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 참여자

창원에서 서울로, 다시 지리산으로 터전을 옮긴 20대 청년 보석씨. 그에게 서울은 기회의 땅 이자 유일한 답처럼 보였지만, 막상 서울의 삶은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서울에 살수록 지역과 ‘어떤 차이’를 느꼈다. 지역살이를 통해 정답이 아닌, 자신만의 해답을 찾고 있는 보석 씨의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말과 사투리, ‘두 개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지역에서 살았네요.

보석

(이하 보) 네. 지금은 창원시에 흡수된 진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어요. 서울에서 20살부터 7~8년 정도 살다가 지리산에 온 지 1년이 됐죠. ‘농촌 살이의 기반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지역 공동체에서 지내다가 나와서 현재는 친구들과 거주하고 있어요.

‘어디사람’ 인터뷰에 참여한 계기가 궁금해요.

보

지역인으로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제가 창원 출신이지만, 일상에서는 사투리가 섞인 말투를 쓰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의 출신지를 알고나면 “사투리 잘 고쳤다”라고 말할 때마다 “왜 이걸 칭찬하지?”, “왜 마음 한구석이 찹찝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어요.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 서울에서 지낼 때 평상시 언어 습관대로 말했는데 사투리 때문에 주목을 받았거든요. 나름의 관심이지만, 보통은 초면에 겪는 상황들이 부담스러웠어요. 일대일로 만났을 때 말투나 억양이 다르니까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서 태어났냐”, “어떻게 오게 됐냐”를 매번 설명하느라 피곤했거든요. 그때 뒤지 않도록 남과 같은 언어를 익혀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투리를 고친 게 아니라 서울말을 익힌 거죠. 두 개의 언어를 쓰는 셈이고요.

사투리로 인한 경험 외에 차별을 체감한 적이 있나요.

보 대다수 매체가 지역 콘텐츠보다 수도권 중심 콘텐츠를 많이 내보내잖아요. 지역에서 보기 전혀 상관없는 소식처럼 느껴지는데요. 전국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낮추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진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냐’라고 묻고, ‘창원 근처다’라고 답하면 ‘창원이 어디냐’, ‘부산 근처다’라고 답하면 그제야 돌아오는 답이 ‘아, 경상도’ 등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각각 다른 지역을 ‘시골로 통쳐서’ 이야기하는 게 오랜 관습인 것 같아요.

이런 관습으로 지역에 대한 이미지에 편견을 더러 느껴요. 농촌을 비위생적으로 여긴다거나 교통편이 불편하다거나 누군가는 “거기서 어떻게 사냐”, “공기는 좋아도 친구도 없고 못 살겠다”라고 말하거든요. 또 수도권과 인프라를 비

교하면서 ‘이거(카페) 있느냐, 저것도 없느냐’ 등 어떤 인프라가 갖춰있는지 수도권 중심의 사고로 지역에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실제 경험한 사례가 있나요.

보 지역을 낮게 보는 시선을 내면화한 지역 주민은 당연히 자기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지역에 살고 있다면, “남아버렸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학생 때 지역을 떠나야 “아, 걔가 뭐라도 하는구나”라고 여기지만, 막상 ‘남아있는 청년’은 측은해하는 거죠. 제가 2020년에 지리산에 살려고 왔는데요. 그때 환대한 분도 계시지만, “여기는 일할 게 없는데 올라가야지, 돈을 벌어야지, 지리산이 좋은 한데 돈은 안 갖다 줘”라는 걱정 섞인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지역 간 불균형은 지리산의 경험이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보 자라면서 서서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 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이 진해 바닥을 떠서 성공한다”라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에 갔을 때 어릴 때 알던 친한 친구를 창원역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옆집에 살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를 따로 다니며 멀어졌다가 4년 만에 기차역에서 만난 건데요. 그때 저는 “쟤도 여길 탈출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어디 가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말하기로 재수학원에 간다고 답한 걸 잊지 못해요. 서울에 가는 사람은 뭔가 높은 것 같고, 서울에 가지 않은 사람은 낮아 보이는 그런 것. 또는 서울로 직행하지 않는다면 제3의 지역을 발판 삼아 서울에 가는. 즉 어떻게 해서든 종착지가 서울이어야만 한다는 걸 경험해온 것 같아요.

생태적인 삶 실천하고 싶어 탈서울을 택하다

그럼에도 다시 지역에 왔네요. '탈(脫)서울'의 계기가 궁금해요.

보 저와 함께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비건(채식주의자)이거든요. 독서모임을 하다가 만난 친구들인데 비거니즘(채식주의) 독서 모임이었어요. 동아리에서 관련 서적을 다루다 보니 생태, 환경문제에 눈을 뜨면서 삶을 돌아보게 됐죠. 도시에서는 내 집을 가질 수 없고, 집을 빌려 사느라 변기를 생태 화장실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도시에서 생

태적인 삶을 지속하기에 한계를 느낀다는 한 친구가 지역살이에 관심을 보였어요.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지금 사는 지리산으로 함께 이주했고요.

지금 지리산 생활은 어떤가.

보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시 산내면은 한국 귀농·귀촌의 1번지거든요. 20년 전부터 귀농 운동이 있었어요. 40~50대를 중심으로 콘텐츠도 많고, 어린이도 많고 마을공동체 형성이 잘 되어있죠. 크게는 마을의 원주민, 원주민이 된 이주민, 막 귀촌한 청년 등으로 구분돼요. 어쩔 수 없이 세대간 갈등도 있어요. 외지인이라 배척받기도 하고, 청년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지리산에서 지내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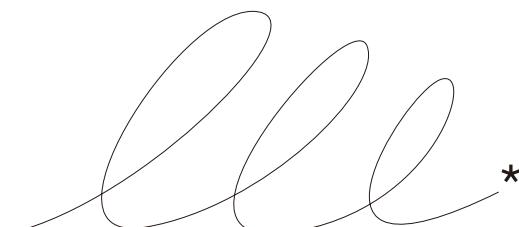
보 활동이 마을과 맞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자본도 연고도 없이 왔음에도 꾸준히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긍정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찾고 있는데, 청년끼리 주체적으로 마을 장터를 열고 있어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수공예품을 팔고, 그림을 그리는 친구는 그림을 팔고, 술도 제조해서 팔아요. 2020년엔 친구들과 농촌 퀴어 퍼레이드를 기획했거든요. 코로나19로 도시가 제 기능을 못했잖아요. 농촌에서도 크고 작은 마을의 축제들이 사라졌고요. 작은 활력이 되고자 면 단위로 작지만, 전 세대를 어우르는 작은 퀴어 퍼레이드 ‘산내 성다양성축제’를 개최

했어요.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연도 보고, 할머니들도 와서 구경하셨죠.

지역과 수도권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 지역과 수도권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연결되는 것 아닐까요.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지역이 케케묵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지역을 둘러보면 청년이 정말 많아요. 현재 제가 사는 마을에만 20여 명의 또래 청년들이 사는 것처럼요. 비거니즘과 페미니즘, 젠더 등 여러 가치를 나누며 지내는 친구들이죠. 도시보다 콘텐츠가 부족하지만, 없진 않아요. 다른 지역에 가면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마을이 전국에 이러한 농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 됐으면 해요.

보석 씨는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을 자리산에서 고스란히 피우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체감하면서도 지역 간 차이는 높고 낮음, 풍요로움과 부족함의 잣대가 아닌 내 곁의 사람들과 삶을 재구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단박에 차별을 해소할 순 없어도 차별의 경험을 딛고 일어서는 방식을 찾고 있는 것 같다.



포천에서 서울로

‘서울’이라는 정답 말고, ‘지역’이 선택지라면



이혜란 |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프로젝트 ‘어디 사람’ 참여자

경기도 포천에서 자라 서울로 온 20대 청년 이혜란 씨. 그는 서울에서 삶을 꾸리는 게 ‘답’이라고 배웠지만, 혜란 씨가 겪은 서울살이는 원하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곳이었다. 어릴 적부터 지역에서 살아온 만큼 지역살이를 꿈꾸고 있지만, 행여나 실패한 것처럼 보일까 봐 불안정한 삶을 부유하며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혜란 씨의 서울살이에는 청년, 일자리, 언어 등 다양한 차별의 경험이 묻어있다.

어디서 나고 자랐어요?

이혜란

(이하 이) 경기도 포천에서 20년 동안 살았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현재 서울에서 9년째 살고 있어요. 마포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사는 것도 서울에 산다는 감각 때문에 선택했어요. ‘서울에 왔는데, 홍대에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역차별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계기가 있었나요.

이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 자체에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서울에 살면서도 이질감이 들기도 했고요. ‘내가 왜 서울에서 살고 싶어 했고, 아등바등 서울에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깨닫고 ‘지역성’ 키워드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서울에서의 삶을 잘 적응하지 못한 거라고 여겼거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주체성이 결여된 선택이랄까. 덕분에 ‘내가 왜 이 도시에 남아있는지, 가길 꺼리는 지역은 어딘지’를 다시 짚어봤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이고, 부담스러워 하는 지역은 어디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지역은 서울과

동등하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여기는 좀 더 나은 도시, 내가 가기에 어려운 도시’ 등으로 지역을 구분 짓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9년 간 서울에서 거주했는데, 돌이켜보면 서울 생활이 어땠어요?

이 항상 이주민의 마음이죠. 서울에서 나고 자란 친구에게 “서울 사는 거 어때? 평생 서울에 집이 있는 느낌은 어때”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별생각 없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사람이 느끼는 감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당연히 이곳에서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에 고민이 커요. 치솟는 집값과 물가를 1인 가구로서 감당 가능한지, 고용 불안으로 서울살이를 포기할 것 같아요. 아직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나이 들면 다른 지역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확신이 점점 생겨요.

지역차별 언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제가 누군가에게 단순히 “어디 사람이야?”, “서울 사람 아니지?”라고 묻는 것부터 나도 모르게 서울 사람과 타 지역 사람을 구분 지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지방에 내려간다’ 혹은 ‘서울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실제 포천은 위도상 서울보다 위쪽에 있는데도 ‘서울에 올라갈게’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포천과 서울까지 고속도

로로 가면 40분 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사람들은 “(포천은) 시골 아냐”라고 말하더라고요. 포천이 지역적으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나름의 혜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지역 간 차별과 언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 지역과 관련해 이야기해본 적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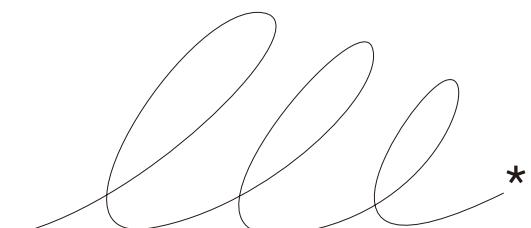
이 본격적으로 논하기보다 지나가듯 말한 적은 있죠. “OO에 살면 어떨 것 같아?”라고 물었는데 친구들은 “아직 용기가 없어”라고 답해요. 혹은 이미 지역으로 간 친구들을 대단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용기가 없다는 건 도시와 지역의 차이를 인정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아직 지역에 갈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평소 지역을 가르는 언어, 경험을 나눠주셨는데, 이를 해소하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이 지역을 도피처로 생각하거나, 실패하는 사람이 가는 곳으로 여기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지역을 삶의 선택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사는 게 객관식 답이었다면, 주관식 답으로 지역이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무엇보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서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뭔가 그들

과 같이 있고 싶어서. 일종의 편견인데. 어디에 살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용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곳이 서울이든 지역이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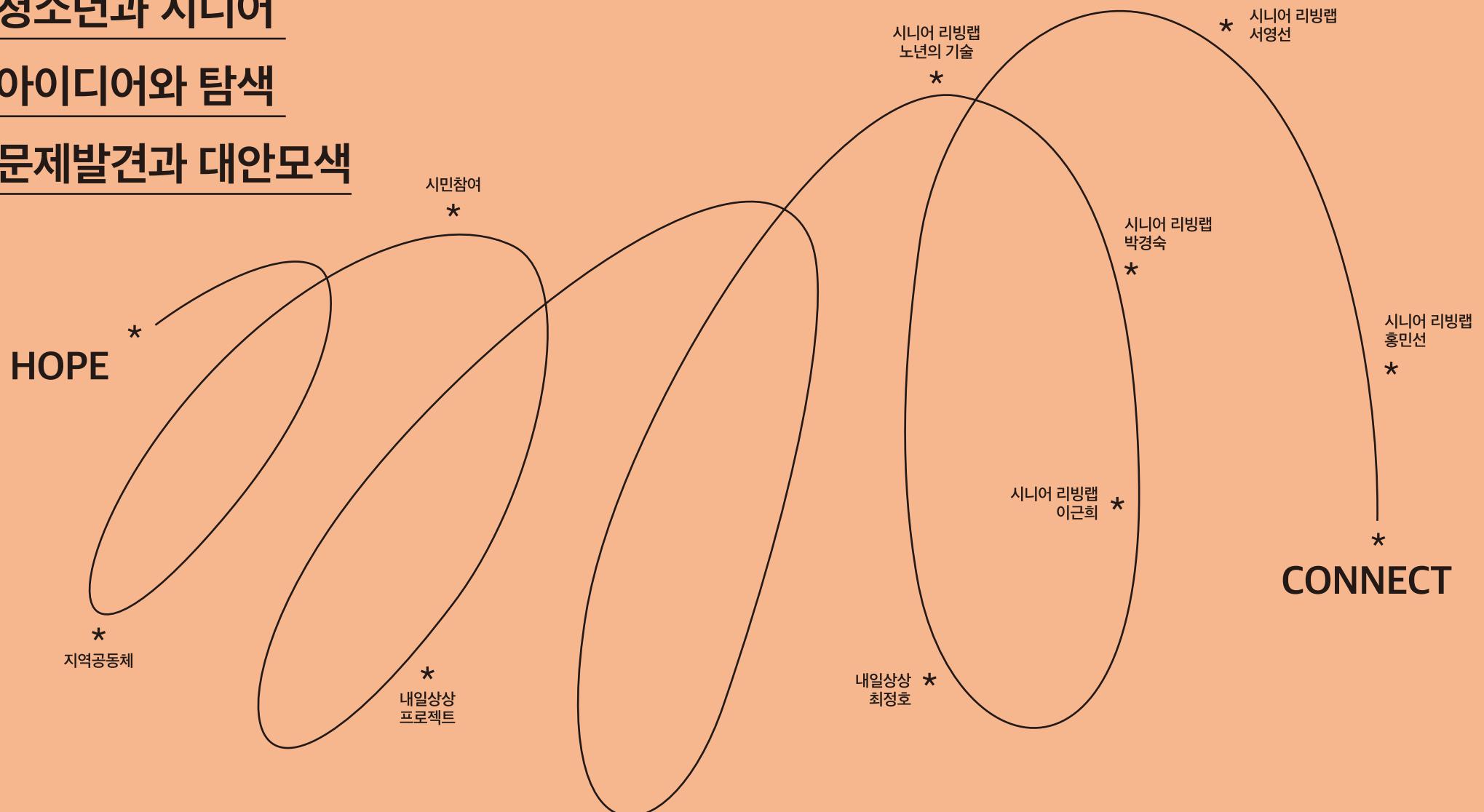
이혜란 씨는 정답과 해답 사이에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있었다. 포천에서 나고 자랐지만, 꽤 많은 시간을 서울에서 보낸 만큼 ‘서울과 나’에 대한 고민이 분명해졌지만, ‘지역과 나’에 대한 고민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혜란 씨의 표정이 궁금하다.



청소년과 시니어

아이디어와 탐색

문제발견과 대안모색



희망제작소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일수록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젝트인 <내일 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와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느라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시니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댄 시니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지역공동체 #시민참여

내일상상프로젝트

도시와 지역의 청소년 진로탐색은 달라야죠.



최정호 |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교사(운봉중학교 교사)

남원 지리산권은 운봉면을 비롯해 산내·아영·인월 각 4개 면마다 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4개 학교는 2021년 자유학년제 수업 시간을 이용해 '마을연합 진로탐색 활동'을 진행했다. 자유학년제는 지난 2018년 희망하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필고사 없이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교과 수업과 함께 진로탐색 교육,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수업 위주로 구성된다.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함께 한 최승호 교사를 만나 지역에서 꿈꾸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가 너무 아름다워요.

**인터뷰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뒷산 같기도 하고 놀이터 같기도 하네요.**

최정호

(이하 최) 말 그대로 놀이터이기도, 쉼터이기도 하고, 항상 자랑하고 싶은 곳이에요. 애들이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에 오고, 주말에도 와서 놀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밧줄놀이터는 2020년 <내일상상프로젝트> 활동으로 함께 만든 거고요. 저 옆에 트리하우스도 얼마 뒤에 청소년과 마을구성원이 함께 만들었죠.

밧줄놀이터팀! 기억나네요.

놀이도 하고, 놀이터도 만들고, 영상 촬영도 하면서 여러 활동을 했죠.

최

활동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요. 프로젝트 결과물보다 사람들을 만난 게 더 값지다고 할 만큼이었으니. 마을 안에서 그런 활동이 자꾸 확장되어오다가 어느덧 학교에도 들어가 볼까 노크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이번 마을연합활동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거네요.

최 맞아요. 제가 경험론자예요. 직접 이것저것 해보고 돌아와서 적용해보는 추진력은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상상력은 많이 없거든요.(웃음) 그런데 지리산마을교육 공동체 길잡이 선생님, 운봉중학교 선생님이 하는 시도가 정말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학교 안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리산이라는 작은 마을, 마을 속 학교와 진로

자유학년제와 진로탐색의 결합,
그리고 4개 학교의 1학년 친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 활동을
계획한 게 인상적입니다.

최 우리는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 청소년과 접하는 진로 탐색 방식과는 조금 다르고, 달라야 한다고 봐요. 교육의 질 문제보다 이 지역에 적합한 자원과 공간을 연결하는 게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걸맞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자유학년제를 의미 있게 활용하자 싶었죠.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진로탐색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 자유학년제는 기본적으로 4개 영역으로 구성돼요.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그리고 진로 탐색. 이 영역을 수업 시수에 맞게 구성하는데요. 영역별 개수 배정은 학교마다 달라요. 우리는 그중에서 ‘진로탐색’ 분야에 집중하기로 계획했죠. 1학기에는 4개 중학교 친구들이 서로 안면을 트고 관계를 만드는 오프닝 활동을 세 차례 진행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2학기는 4시간씩(격주), 총 10회차의 본격적인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계획했죠.

여러 학교가 연합하는 활동을 기획할 때 주요하게 고려한 지점이 있나요.

최 연합활동을 고민한 건 두 가지 지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좀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기회라는 점. 학교 다니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배우는 대상은 친구들이에요. 진로 고민에서도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 1학년 전체 인원(2021년)이 13명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10년 가까이 한 학년에 스무 명 남짓인 친구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확장될 여지나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 항상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13명의 친구와 십 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 돈독하면서도 조금 심심할 것도 같네요.

최 친구의 수만이 아니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자체가

단조로울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 진로탐색 활동 무대를 마을로 확장하자는 목표로 연결했고요. 운봉에 사는 애들도 운봉에 뭐가 있고 누가 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운봉을 다른 학교 친구에게 직접 소개해야 한다?’라고 떠올려보면, 그럼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학교뿐 아니라 자꾸 마을을 배워보자 혹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 보자는 등 크고 작은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자유학년제와 진로의 연결, 학교에도 색깔을 입혀주었으면

**시험 대신 진행하는 자유학년제와 내일상상의 결합이 절묘해요.
정규 수업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최 ‘공교육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어디까지 허용할까’하는 부분이죠. 자유학년제라고는 해도 외부 프로그램의 제약도 많고, 기본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그

이상의 의미는 있죠. <내일상상프로젝트> 파트너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결합한 선생님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고민했어요. 이러한 과정은 학생만이 아닌 선생님들도 점점 연결한 셈이죠.

마을에서 배우는 진로탐색 활동의 가치를 학교와 교사 모두 배우는 과정이네요.

최 맞아요. 직업이나 전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은 학생에게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진로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와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존 교육이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최 중학교 아이들과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할 때 여전히 무조건 대학이 기준이에요. 뭐 선택지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 중에는 대학 진학률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아직 이 지역에서는 내신 따기 쉬운 곳이 우선이죠. 학교에서도 ‘너는 공부 잘 하니까 인문계 가서 의사나 판사를 하고, 너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특성화고 가서 기술 배워라’라는 말만 해주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진로에 맞게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양하면 좋겠어요. 자유학년제도 그런 의미로 활용하고 싶고, 특히 이렇게 작은 학교의 연합활동으로 학교에 색깔을 입혔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역의 작은 마을, 작은 학교이기에 연결이 가능한 게 아닐까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최 저희도 이제 시작이라 너무 거창한 얘기는 부담스러운데요(웃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아까 프로그램을 하다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운봉중학교에서 왔다는 걸 아셨나 봐요. 당신 집도 운봉이라고 하시는데, “운봉 살기 좋죠?” 그랬더니, “아니, 산내가 더 좋아. 물도 있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에 대한 또 한 가지 답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이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알고 난 상태에서 나는 어떤 진로를 고민할 것인지 경험해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품은 고민을 다시 떠올렸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일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욕심 같았던 바람이 ‘일도 하고, 살아가기 위한 뿌리’에 관한 고민으로 넓어졌다. 이제 선생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본다. ‘일단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은 불안함’. 진로를 고민하면 항상 부딪혔던 고민을 ‘지역 이기에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가는 모습에 힘을 얻은 시간이었다.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체험 위주의 단발적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직접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프로젝트이다. 2021년 3년차에 접어든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학교 및 마을과 청소년 진로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시니어 리빙랩 <노년의 기술>

시니어가 해결하는 시니어의 문제



박경숙, 서영선, 이근희, 흥민선 |

서울 종로구 시니어 리빙랩 <노년의 기술> 참여자

시니어 지역 주민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동네 가게에도 ‘키오스크’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기술과 변화는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 시니어는 무조건 기술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걸까. 시니어 당사자로서 겪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톡 터놓고 이야기를 했다. 바로 서울 종로구 시니어 리빙랩 <노년의 기술> 참여자 얘기다. 사업에 참여한 박경숙, 서영선, 흥민선 매니저와 청년으로서 참여한 이근희 매니저를 만나 ‘시니어 리빙랩’을 살펴봤다.

자기소개 부탁 드려요.

이근희

(이하 이)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매니저로 참여했습니다.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어 ‘한 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협업뿐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을 배운 것 같아요.

박경숙

(이하 박) 시니어 리빙랩 ‘덕원팀’에 참여했고요. 처음에는 왜 ‘리빙랩’을 영어로 했을까 싶었는데, 막상 참여하니 많은 뜻이 함축된 단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영선

(이하 서) ‘삼다수팀’의 서영선입니다. 발랄한 팀원들과 함께했는데요. ‘리빙랩’ 자체를 전혀 모르고 참여했는데, 팀원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은 요즘입니다.

흥민선

(이하 흥) ‘한마음팀’의 매니저로 활동했는데요. 시니어 리빙랩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만 모이는 자리인가 싶었는데, 청년과도 함께 하니까 좋았어요.



시니어리빙랩 참가자
박경숙, 서영선, 홍미선씨
(좌측부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참여했어요. 여전히 ‘리빙랩’이 어렵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리빙랩을 들어보신 적 있었나요. 리빙랩을 하시면서 어땠나요.

서 ‘리빙랩’은 참여하기 전에는 백지 상태였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시니어 리빙랩은 시니어에 특화된 사업 같아요.

홍 나이 드신 분들은 생활 속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게 리빙랩 같아요. 제품을 조사하고, 인터뷰하면서 내 삶에 전문적으로 접근해 해결 방식을 찾는 거요. 여전히 모호하고,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점차 알아가고 있어요.

박 매회 참여하다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룹에 포함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

거든요. 어렴풋이 생각만 했던 것, 나하고 거리가 멀리 있는 일을 실제로 접하고, 내가 직접 알아가고, 의견을 내는 과정이 참 좋았어요.

이 시니어가 아닌 청년으로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감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게 가장 커요. 저는 처음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공감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지점에서 리빙랩의 가치를 발견한 것 같아요.



시니어리빙랩 참가자
박경숙씨

평소 기술에 불편함을 느낀 적 있나요.

박 손녀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요.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이름도, 맛도 알아야 선택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시대에 편승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점원 도움으로 해결했어요.

이 저희도 집 앞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는데, 키오스크에서 바코드를 찍어야 결제가 되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 사러 들어갔는데, 어르신이 엄청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무인 가게니까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대신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어요.



시니어 리빙랩에서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주세요.

서 제가 속한 ‘삼다수팀’은 ‘워싱베드’(washing bed)를 아이디어로 냈어요. 연로해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씻기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침상 환자의 경우 더욱 씻기는 게 어려워서 이에 관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에 소개된 ‘맥가이버 남편’ 편이 촉매제가 됐어요. 어떤 남성 분이 루게릭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침대를 개조한 이야기예요. 우리 팀은 이 부분을 벤치마킹했어요. 실제 가구점에도 방문해보니까 리클라이닝 침대가 많이 나와 있지만, 거의 상부를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침대이지, 씻기기 편리한 의료용 침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 ‘덕원팀’은 AI로봇에 관한 얘기했는데요. 노인들이 한 두 마디가 아니라 열 마디 정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해 혼자 있는 시간의 외로움을 덜어내고, 폭넓은 세상살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취지였어요. 실제 스마트 놀이터가 있는 종로구와 광진구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AI 로봇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데,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홍 지팡이를 보완하는 아이디어였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기존에 이미 구현된 경우가 많잖아요. 지팡이를 가장 많이 출시하는 회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는데, 지팡이의 핵심은 간편하면서도 가벼운 재료를 쓰는 방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의 소재를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을지 방향을 잡았어요.

**프로젝트마다 특색 있네요. 이미 만들어진 기술에 보완사항,
혹은 새롭게 발견한 리빙랩 과정이 흥미로운데요.
아이디어와 기술과의 접점을 찾는 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홍 리빙랩은 하나의 문제를 두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생각과 아이디어가 합쳐졌을 때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룹으로 하나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니까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서 시니어 리빙랩에 참여한 계기가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현재 아흔이 넘은 부모님을 돌보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시니어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술을 개발한다기보다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고, 편하게 돌봄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죠. '기술'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팀원과 꾸준히 토론하면서 '워싱베

드' 아이디어도 낼 수 있었어요. 리빙랩이 사고의 혁신을 가져온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리빙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불가피하게 기술을 많이 활용해야 했는데,
좋았던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박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했는데, 저는 좋았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요. 비대면 속에서도 친교를 쌓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할까요.

서 처음 줌으로 모였을 때 아주 어색했어요. 대면으로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비대면 모임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하다 보니 줌이 익숙해져서 웃도 편하게 입고, 편안한 공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단점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모임 활동하면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 좋은데 못하잖아요.

이 이번 리빙랩 과정을 해보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절반씩 섞어서 진행하면 좋겠더라고요. 이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시너지 효과가 분명한 프로젝트, 워크숍, 아이디어 회의는 대면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홍 저도 실제로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서로 만나서 아이디어를 의논할 수 있었으면 해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비대면이 요구될수록 습득해야 할 기술도 늘어나고, 기술 소외 현상을 겪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상을 송두리째 바꾼 상황속에서 진행된 ‘시니어 리빙랩’. 참여자들은 생소한 단어로 여겼지만, 본질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역 현장에서 시민 참여로 이뤄진 작은 실험이 ‘문제 해결’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시니어 리빙랩 <노년의 기술>

서울 종로구 시니어 리빙랩 <노년의 기술>은 시니어가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서 주체적으로 나의 노년을 설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는 ‘제작자’가 되어보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을 품고 출발한 사업이다. 우리 지역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닫는 말

희망의 원천은 여러분입니다

‘소셜디자이너’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혁신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희망제작소가 불인 명칭입니다.

2022년 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을 꿈꾸는 이들과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소셜디자이너’와

우리 시대의 과제들에 도전하겠습니다.

2022년 기후문제해결을 위한 ‘소셜디자이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시대 대비 1.5°C 로 억제하는 것.

지구촌 전체의 이 절박한 과제는 시민들의 지혜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연구와 실천 활동에서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희망씨 ‘로컬디자이너’와 연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수도권은 과밀화로 몸살을 앓는 지금,
지역쇠퇴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소셜벤처, 지자체, 마을활동가들이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로컬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 2.0의 길을 찾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개된 사회혁신의 노력은 시장이 바뀌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치논리로 사회혁신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사회혁신 20년, 서울혁신 10년의 성과들을 정리·평가하고,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혁신 방안을 궁리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은 사람입니다.

서로를 보듬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임주환 드림

HOPE

CONNECT

희망제작소와 함께 하는 법

사업연구 및 협력

희망제작소는 책상이 아닌 현장을 누비며 사람, 지역 중심의 대안을 모색합니다. 협업 혹은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395-1419 | hope@makehope.org

후원문의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정기후원 및 1004클럽, 호프메이커스클럽, 일시후원 등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02-6395-1415 | give@makehope.org

기관방문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기관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02-6395-1415 | hope@makehope.org

공간대관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대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및 공간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대관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395-1437 | hope@makehope.org

HOPE

*

CONNECT

희망의 별

2021년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3,092명

가정례	강미순	강신태	강주혜	故 노경래	고영민
갈상돈	강미옥	강영수	강준원	故 박원순	고영희
강경근	강민수	강영은	강진영	故 이영구	고우주
강귀원	강민숙	강영혜	강창경	故 이창식	고윤희
강근호	강민철	강유미	강창수	故 하영인	고은경
강기석	강민혜	강윤정	강천구	故 황태영	고은호
강나루	강병규	강은숙	강철성	고경희	고재경
강남이	강봉근	강은엽	강춘근	고계봉	고재원
강대봉	강봉기	강은주	강평석	고광민	고재은
강대성	강부연	강은혜	강현구	고광용	고재준
강대현	강석목	강을규	강현아	고광현	고정립
강동욱	강선미	강인구	강현오	고군순	고정현
강동하	강세진	강인숙	강현직	고명섭	고제석
강두원	강소영	강전희	강훈근	고명옥	고준영
강란희	강소희	강정근	강희석	고명희	고진실
강명득	강수윤	강정미	강희원	고민숙	고진용
강무석	강숙희	강정인	경규은	고세현	고한용
강미경	강승구	강정한	계나리	고순창	고현선
강미선	강승민	강정훈	故 김창국	고승환	고희범

고희채	구경완	권성하	기동환	김경태	김기민	김대환	김두기	김미경	김민주	김상조	김성숙
공도영	구도완	권소영	기세정	김경태	김기윤	김덕창	김라온	김미라	김민철	김상주	김성실
공석범	구설환	권수현	기은환	김경호	김기중	김덕희	김만일	김미리	김민호	김상준	김성심
공양식	구영수	권숙인	기효은	김경호	김기호	김도균	김말순	김미숙	김범용	김상호	김성일
공은영	구완희	권순규	길영란	김경화	김길수	김도년	김맑음	김미숙	김병곤	김상희	김성재
공정순	구윤서	권순남	김가온	김경환	김나경	김도빈	김명기	김미숙	김병목	김생기	김성종
공정이	구자현	권순중	김갑수	김경희	김나리	김도언	김명보	김미숙	김병수	김석	김성철
공진형	구희숙	권신우	김강	김경희	김나윤	김도영	김명선	김미숙	김병윤	김석곤	김성태
곽경란	국영석	권영민	김강수	김경희	김낙준	김도영	김명숙	김미숙	김병희	김석란	김성홍
곽근식	국재민	권영식	김강수	김경희	김난영	김도영	김명숙	김미숙	김보라	김석용	김성환
곽노진	국지연	권오상	김강식	김계범	김남기	김도요	김명숙	김미순	김보람	김석환	김세안
곽민경	권건주	권오정	김강원	김계숙	김남연	김도형	김명식	김미아	김보영	김선	김세우
곽상욱	권경원	권오준	김강표	김계영	김남정	김도형	김명신	김미연	김보영	김선경	김세중
곽성현	권구홍	권장희	김강학	김관효	김남희	김동기	김명자	김미영	김봉선	김선기	김세진
곽소현	권기식	권정혜	김건엽	김광래	김남희	김동립	김명중	김미영	김봉신	김선숙	김세홍
곽시영	권기태	권정희	김건효	김광유	김남희	김동석	김명진	김미정	김부정	김선옥	김세훈
곽영호	권대현	권정희	김경남	김광현	김다슬	김동선	김명학	김미정	김삼용	김선정	김세희
곽윤섭	권명숙	권중환	김경란	김광희	김다영	김동식	김명환	김미진	김삼희	김선조	김소연
곽자현	권미선	권진택	김경미	김구슬	김다이	김동애	김명희	김미현	김상길	김선창	김소영
곽재윤	권미혜	권태승	김경보	김귀경	김달수	김동율	김명희	김민	김상만	김선현	김소영
곽정서	권민주	권혁경	김경숙	김귀연	김대식	김동채	김명희	김민솔, 김윤솔	김상만	김선화	김소윤
곽진훈	권보미	권혁순	김경순	김귀정	김대영	김동한	김명희	김민영	김상수	김선희	김소은
곽현지	권상동	권혁중	김경순	김균희	김대용	김동현	김묘경	김민우	김상욱	김선희	김송희
곽혜영	권선영	권호현	김경일	김근영	김대호	김동현	김문길	김민정	김상원	김설	김수경
곽효승	권성률	권희석	김경태	김금란	김대호	김동호	김문성	김민정	김상원	김성민	김수근
광용스님	권성미	금철영	김경태	김금옥	김대홍	김동훈	김문식	김민주	김상윤	김성수	김수길

김수봉	김연순	김영일	김용진	김은경	김장우	김정현	김종진	김지혜	김창규	김학중	김현정
김수열	김연진	김영종	김용진	김은경	김재범	김정호	김종철	김지혜	김창민	김한규	김현정
김수영	김연철	김영주	김용찬	김은미	김재숙	김정환	김종현	김지홍	김창주	김한나	김현정
김수영	김연화	김영준	김용필	김은숙	김재승	김정훈	김종환	김지희	김창준	김한미	김현정
김수영	김영각	김영준	김용희	김은아	김재영	김정희	김종환	김진경	김창훈	김한순	김현종
김수정	김영각	김영진	김우용	김은영	김재우	김정희	김종훈	김진교	김천애	김한주	김현주
김수철	김영곤	김영진	김원섭	김은원	김재원	김제선	김종훈	김진규	김철수	김해심	김현중
김수희	김영규	김영철	김원용	김은재	김재윤	김종관	김종희	김진묵	김철수	김향호	김현중
김숙자	김영기	김영태	김원철	김은철	김재춘	김종국	김주연	김진선	김철호	김혁	김현중
김순일	김영돈	김영태	김원철	김은하	김재춘	김종범	김주인	김진섭	김철호	김현경	김형권
김슬기	김영린	김영훈	김원호	김은하	김재현	김종석	김주형	김진섭	김춘우	김현곤	김형균
김승주	김영배	김영훈	김유미	김은향	김재현	김종석	김주형	김진수	김충수	김현모	김형모
김승현	김영석	김옥희	김유선	김은희	김재현	김종성	김준묵	김진수	김충효	김현미	김형석
김승현	김영선	김완수	김유성	김의인	김재훈	김종수	김준석	김진수	김태동	김현미	김형신
김승환	김영수	김왕경	김유진	김이종	김전호	김종수	김준열	김진숙	김태미	김현서	김형중
김신록	김영수	김요안	김유진	김익록	김정근	김종순	김준영	김진여심	김태선	김현석	김형중
김아영	김영숙	김용관	김윤기	김익환	김정란	김종식	김준용	김진용	김태우	김현성	김형진
김애선	김영숙	김용구	김윤세	김인경	김정미	김종신	김준혁	김진우	김태일	김현수	김형태
김애숙	김영순	김용대	김윤수	김인규	김정민	김종오	김준호	김진욱	김태임	김현숙	김혜경
김양수	김영시	김용민	김윤식	김인도	김정연	김종우	김지민	김진주	김태진	김현숙	김혜림
김양숙	김영식	김용삼	김윤식	김인섭	김정엽	김종육	김지수	김진하	김태현	김현숙	김혜빈
김양순	김영식	김용식	김윤자	김인수	김정원	김종운	김지우	김진호	김태훈	김현숙	김혜성
김양우	김영실	김용식	김윤정	김인수	김정은	김종원	김지운	김진호	김평만	김현숙	김혜영
김여린	김영옥	김용운	김윤진	김인숙	김정주	김종일	김지현	김진홍	김평우	김현식	김혜영
김연규	김영우	김용의	김윤희	김인자	김정현	김종일	김지현	김찬동	김학선	김현우	김혜장
김연수	김영익	김용재	김율	김인호	김정현	김종임	김지혜	김창규	김학숙	김현정	김혜정

김혜준	나옹	남정섭	노주환	류형주	문성실	문희숙	박금섭	박미라	박선영	박수선	박영
김호석	나은미	남정수	노준식	리기태	문성원	문화현	박금연	박미리	박선영	박수영	박영국
김호일	나은중	남중재	노진철	리화수	문승국	민병덕	박금자	박미연	박선옥	박수주	박영립
김호현	나인경	남춘우	노태균	마경희	문승민	민병현	박기순	박미화	박선주	박수진	박영미
김홍기	나인호	남충일	노태영	마용철	문승보	민보호	박길수	박미희	박선주	박수진	박영섭
김홍석	나정아	남태웅	노현주	마장석	문영근	민복기	박나경	박민아	박선화	박수진	박영수
김홍선	나종민	남태원	노훈영	마주현	문영실	민상기	박나래	박민정	박선후	박수진	박영수
김홍성	나진희	남현정	노희숙	마현철	문영주	민성환	박나리	박민혜	박선희	박수천	박영신
김효근	나한영	남현우	도면희	명은선	문윤	민용기	박난주	박병순	박선희	박수한	박영아
김효성	남경완	남현주	도종현	명인환	문인근	민윤기	박남영	박병윤	박선희	박수현	박영혜
김효숙	남경탁	남혜정	류근영	명재범	문자성	민은기	박노곤	박병일	박선희	박수희	박영혜
김효진	남경희	노경민	류대열	모경숙	문정기	민정희	박노규	박병조	박성권	박숙경	박영희
김홍수	남궁경	노경배	류방란	모남순	문정수	민진해	박다겸	박보건	박성식	박숙정	박완규
김희근	남미현	노동섭	류상일	모종린	문정순	민현범	박대길	박보경	박성우	박순빈	박용규
김희빈	남병영	노석양	류석원	문국현	문정훈	민형덕	박동현	박보영	박성웅	박순성	박용미
김희상	남보현	노세호	류석진	문기수	문정희	박경추	박두규	박복영	박성은	박승록	박우성
나기선	남봉우	노수호	류수정	문나래	문진수	박경호	박만순	박사연	박성주	박승자	박우주
나기철	남선옥	노숙영	류수진	문내현	문진수	박경화	박말희	박삼석	박성칠	박시훈	박원미
나도남	남수환	노시군	류시정	문덕순	문창기	박계순	박명남	박상국	박세경	박안수	박원철
나범준	남승우	노유진	류은화	문라경	문한원	박고운	박명숙	박상배	박세권	박애경	박윤
나봉임	남안진	노은별	류재란	문미란, 정미화	문한주	박광만	박명제	박상옥	박세원	박애자	박윤경
나상윤	남영민	노인선	류재향	문병채	문해리	박광희	박명준	박상위	박세원	박언희	박윤주
나성곤	남원숙	노재권	류정열	문병현	문현성	박귀숙	박명준	박상인	박세희	박연미	박윤택
나소열	남윤우	노정은	류현수	문상효	문혈	박근로	박명진	박상진	박수기	박연수	박윤희
나승대	남은성	노정해	류현영	문석진	문혜숙	박근영	박미경	박서영	박수미	박연진	박은기
나승혜	남은아	노정혜	류현주	문성미	문호준	박금례	박미라	박선민	박수미	박연희	박은미

박은수	박제훈	박진교	박현성	반민규	배종현	변강훈	서순현	석락희	성한표	송난근	송정복
박은우	박종권	박진우	박현수	방동필	배크리스티나	변경희	서슬기	석승정	성행자	송동준	송종대
박은정	박종덕	박진해	박현숙	방서은	백경미	변성혁	서승옥	석춘지	소병훈	송미숙	송종호
박은정	박종락	박진현	박현숙	방순홍	백경호	변재용	서영태	선권수	소순일	송미종	송종화
박은주	박종범	박진형	박현숙	방윤규	백관숙	변한식	서용석	선두남	소정숙	송병주	송준아
박은혜	박종서	박진희	박현숙	방정일	백낙현	변형구	서용석	선문숙	소준노	송석원	송진선
박인규	박종선	박진희	박현정	방지현	백대현	변혜리	서용칠	선미라	손명숙	송수정	송창룡
박인기	박종연	박찬욱	박현주	방지형	백서윤	봉혜영	서운석	선보영	손민지	송수진	송창석
바일준	박종진	박찬이	박현희	방호정	백석인	부윤경	서유나	선윤식	손봉희	송순임	송창호
박재규	박종포	박찬익	박형기	배국진	백승아	서건우	서윤진	선현종	손선숙	송순희	송철호
박재석	박종환	박창기	박형민	배규식	백승철	서경득	서재규	설수정	손언희	송아영	송태준
박재송	박종훈	박창원	박형웅	배금자	백승하	서경주	서정범	설지원	손열	송연희	송택진
박재승	박종희	박창조	박형준	배몽희	백승현	서기원	서정보	설창환	손영란	송영선	송하진
박재홍	박주련	박창주	박혜란	배민혜	백승훈	서기호	서정순	설환준	손인권	송영선	송현준
박정규	박주은	박재연	박혜림	배소영	백윤애	서길석	서정호	성갑선	손정화	송예진	송형주
박정미	박주호	박철은	박혜미	배수연	백은옥	서난원	서정훈	성공스님	손제희	송옥분	송형진
박정미	박주홍	박춘희	박혜은	배수옥	백인화	서동명	서종균	성미령	손준혁	송요덕	송혜섭
박정원	박준빈	박춘희	박호순	배수진	백정호	서동욱	서종식	성상희	손지열	송은경	송혜승
박정윤	박준우	박치용	박호황	배양숙	백종학	서동혁	서종식	성수경	손창우	송인세	송혜영
박정은	박준형	박태일	박홍우	배영민	백준기	서명섭	서충모	성수현	손혜진	송인아	송희진
박정진	박중록	박태주	박효진	배영욱	백해림	서명희	서한석	성순근	송건	송인준	신경희
박정혜	박지숙	박태환	박훈재	배영진	백현숙	서미정	서현	성시경	송경애	송자영	신관섭
박정화	박지연	박토마스상진	박홍석	배정민	백현주	서민경	서혜경	성원선	송귀종	송자은	신광수
박정희	박지현	박항기	박희경	배정범	백현호	서병훈	서혜진	성윤주	송기용	송장식	신광현
박정희	박지혜	박현	박희선	배정화	백혜선	서상희	서희용	성종남	송기철	송재윤	신국섭
박정희	박지호	박현석	반기민	배정훈	법안스님	서성민	석기석	성지은	송기호	송재택	신권수

신기수	신제철	심재호	안순억	안혜신	양은혜	엄희선	오상현	오주현	우원태	유다한	유윤희
신덕순	신종관	심정희	안슬기	안혜정	양인수	여수경	오석조	오준영	우은주	유동열	유인선
신동기	신종태	심현정	안승식	안혜진	양인실	여태전	오석호	오지은	우인규	유동환	유일선
신동민	신지현	심화섭	안영도	안효숙	양재학	여혜선	오설자	오진락	우지희	유미화	유재경
신동숙	신진숙	아영창	안영삼	양금주	양종희	여희승	오세규	오채현	우화자	유민욱	유재경
신동호	신철호	안강희	안영신	양기근	양주훈	연규일	오세림	오철수	우희창	유보성	유재훈
신면섭	신태섭	안관옥	안영주	양동철	양진원	연만희	오세범	오충섭	원기준	유상모	유정수
신미숙	신해영	안광수	안영진	양명희	양진원	염경형	오세정	오치성	원명스님	유상훈	유주연
신보영	신현만	안난숙	안영환	양명희	양춘선	염영하	오세희	오탁근	원명희	유선아	유준원
신봉승	신현철	안동균	안윤경	양문숙	양춘승	염영화	오승원	오태희	원삼규	유성일	유지균
신서인	신혜미	안명희	안윤정	양민승	양택관	염진근	오승화	오한섭	원영찬	유성철	유지숙
신석민	신혜진	안미숙	안은미	양민영	양향숙	염태영	오연석	오현석	원영희,조순자	유승목	유진환
신수원	신혜진	안미영	안재기	양병찬	양혜란	예병관	오영수	오현숙	원유광	유승우	유창선
신숙	신호선	안미희	안재현	양봉숙	양희진	예종현	오영진	오현주	원윤희	유승희	유창진
신승백	신호재	안병규	안재홍	양상철	어수갑	오광진	오영훈	오호진	원재희	유시주	유창환
신아영	심동섭	안복님	안정경	양성우	어수행	오남성	오예진	옥세진	원정연	유시춘	유충권
신영철	심성우	안상용	안정숙	양숙자	엄경미	오내승	오요환	옥진호	원종아	유양하	유택근
신우경	심수미	안상현	안정애	양승조	엄경선	오대균	오우식	옹미란	원종철	유연식	유해진
신원건	심수영	안석민	안정화	양승철	엄상현	오덕만	오윤영	왕준연	위길연	유영만	유현석
신유철	심영구	안선영	안종기	양시원	엄승룡	오동렬	오윤정	왕지옹	위성곤	유영미	유현오
신일현	심우영	안성진	안종록	양완범	엄용태	오동운	오은경	용윤실	유건식	유영민	유형걸
신재민	심우진	안성항	안지윤	양우진	엄의식	오명철	오은숙	우성희	유경	유영아	유형준
신재홍	심의용	안성호	안태성	양우혁	엄정미	오문수	오은애	우연창	유광곤	유영준	유홍숙
신정민	심재복	안세영	안현희	양원철	엄정헌	오미령	오정숙	우영숙	유광열	유영화	유희숙
신정아	심재섭	안세주	안형주	양유라	엄지선	오미영	오종혁	우영진	유금자	유용덕	육기승
신정자	심재엽	안수정	안혜숙	양은주	엄태주	오민석	오주평	우원식	유다인	유윤식	육정화

윤경자	윤승용	윤진수	이경수	이기열	이동현	이미자	이산	이샛별	이수관	이승훈	이영호
윤귀현	윤신요	윤태범	이경숙	이기원	이동호	이미정	이상규	이석모	이수안	이승훈	이옥경
윤규식	윤아란	윤현주	이경열	이기자	이동호	이미지	이상길	이석문	이수연	이시원	이옥금
윤대승	윤여원	윤현혜	이경영	이기재	이동환	이미희	이상대	이선미	이수용	이시은	이옥선
윤덕규	윤여임	윤혜숙	이경욱	이기준	이동훈	이민선	이상미	이선미	이수정	이아리	이옥성
윤도현	윤영옥	윤화섭	이경은	이기현	이동훈	이민숙	이상봉	이선아	이수정	이아림	이옥숙
윤명	윤영주	윤효주	이경자	이나미	이동희	이민숙	이상실	이선애	이수정	이아영	이왕규
윤미	윤영호	윤희운	이경찬	이난수	이득영	이민아	이상아	이선진	이순녀	이안교	이왕준
윤미경	윤오복	은수진	이경철	이난숙	이란이	이민아	이상연	이선희	이순덕	이양희	이용관
윤미영	윤요섭	은영	이경하	이남연	이리나	이민아	이상엽	이선희	이순열	이여진	이용규
윤미정	윤용찬	은정주	이경현	이남옥	이마리아	이민영	이상욱	이선희	이순자	이연	이용기
윤상식	윤웅섭	은탁	이경훈	이남표	이만성	이민주	이상욱	이성	이순향	이연숙	이용수
윤서영	윤은선	이가람	이경희	이다솜	이명곤	이민진	이상욱	이성요	이순희	이연숙	이용숙
윤서영	윤인철	이갑수	이경희	이다현	이명남	이민진	이상원	이성용	이순희	이연주	이용우
윤석금	윤재연	이강산	이계성	이대공	이명미	이민형	이상철	이성은	이슬	이연호	이용원
윤석인	윤재은	이강일	이권의	이덕희	이명준	이범석	이상철	이성은	이승민	이영란	이용찬
윤석현	윤재훈	이건웅	이규리	이도찬	이명희	이병근	이상현	이성일	이승열	이영복	이용훈
윤설희	윤정용	이건홍	이규철	이동	이명희	이병남	이상현	이선희	이승용	이영실	이우철
윤성순	윤정주	이경란	이근국	이동규	이무열	이병문	이상현	이세리	이승우	이영완	이육자
윤성우	윤정혜	이경미	이근규	이동섭	이문자	이병미	이상호	이세향	이승재	이영욱	이육주
윤설희	윤제용	이경미	이근영	이동수	이문재	이병식	이상호	이소영	이승준	이영음	이운영
윤숙자	윤제인	이경미	이근우	이동식	이문화	이병찬	이상호	이소원	이승철	이영일	이웅희
윤숙자	윤종숙	이경민	이근우	이동재	이문화	이병화	이상훈	이소정	이승철	이영주	이원목
윤순영	윤주진	이경민	이근정	이동주	이미경	이병훈	이상훈	이소현	이승현	이영지	이원보
윤순진	윤주현	이경배	이금자	이동중	이미란	이봉금	이상희	이솔	이승호	이영춘	이원용
윤승민	윤진상	이경선	이금천	이동진	이미선	이봉용	이새봄	이수경	이승훈	이영학	이원재

이원진	이은선	이재명	이정민	이종욱	이지은	이철구	이해영	이혜원	임국진	임인자	임호수
이원혜	이은숙	이재성	이정민	이종찬	이지은	이철범	이해완	이혜정	임근래	임자인	임호택
이원호	이은심	이재수	이정선	이종찬	이지호	이철수	이향림	이혜진	임대홍	임재연	임홍탁
이유빈	이은애	이재승	이정숙	이종학	이지훈	이철원	이혁성	이혜진	임대홍	임정미	임희경
이유식	이은영	이재승	이정애	이종현	이진	이철호	이혁우	이호군	임동임	임정빈	임희경
이유영	이은정	이재열	이정옥	이주식	이진경	이춘삼	이현경	이호규	임미선	임정숙	임희정
이유진	이은주	이재영	이정우	이주언	이진규	이춘희	이현규	이호섭	임병석	임정엽	임희택
이유희	이은혜	이재영	이정옥	이주연	이진선	이충엽	이현숙	이호원	임병욱	임정택	장경욱
이윤경	이은화	이재왕	이정은	이주한	이진순	이충희	이현정	이호진	임성규	임종진	장규성
이윤구	이은희	이재용	이정칠	이주현,이지숙	이진여	이태규	이현주	이호혁	임성미	임종혁	장근수
이윤모	이응수	이재욱	이정한	이준범	이진영	이태규	이현주	이화연	임성주	임종호	장근화
이윤미	이응훈	이재은	이정현	이준식	이진영	이태성	이현주	이화영	임성진	임주환	장금순
이윤배	이의중	이재은	이정화	이준옥	이진주	이태성	이현준	이화영	임세혁	임준엽	장다영
이윤정	이인규	이재천	이정훈	이준행	이진홍	이태환	이현진	이화철	임승철	임준형	장대도
이윤호	이인동	이재혁,이재욱	이정희	이준호	이찬우	이태희	이형범	이환열	임양묵	임지연	장동일
이윤환	이인석	이재호	이정희	이준호	이찬희	이택환	이형섭	이효상	임영일	임진우	장동찬
이윤희	이인선	이재호	이정희	이준호	이창석	이판도	이형숙	이희경	임영희	임창주	장미옥
이윤희	이인안	이재화	이정희	이중욱	이창순	이하영	이형주	이희경	임예원	임채숙	장미정
이은경	이일하	이전영	이제명	이지민	이창원	이하주	이혜경	이희성	임오승	임채용	장민경
이은경	이임복	이점호	이제이	이지수	이창준	이하진	이혜림	이희영	임완숙	임채혁	장병영
이은경	이재갑	이정국	이제학	이지연	이창준	이학노	이혜민	이희정	임용환	임현규	장병학
이은경	이재경	이정국	이조희	이지연	이창한	이학희	이혜숙	이희정	임원영	임현석	장병화
이은경,천홍주	이재경	이정기	이종경	이지영	이창환	이한복	이혜숙	이희정	임윤경	임현정	장복규
이은상	이재국	이정례	이종문	이지원	이채연	이한성	이혜영	이희중	임윤서	임현진	장복순
이은석	이재규	이정민	이종봉	이지원	이채웅	이한진	이혜온	인성분	임윤진	임형식	장석
이은선	이재령	이정민	이종아	이지윤	이철	이해란	이혜욱	임경택	임인규	임형주	장선례

장선하	장진성	전문주	전진석	정낙식	정상섭	정영기	정은	정제억	정창섭	제희원	조선희
장선희	장채순	전미진	전태윤	정남훈	정상오	정영배	정은경	정종경	정태문	조경래	조성갑
장숙이	장철호	전민주	전평	정다영	정상훈	정영수	정은혁	정종일	정태욱	조경숙	조성국
장연정	장태복	전병길	전하얀	정다운	정새롬	정영숙	정은화	정종택	정태홍	조경실	조성오
장영덕	장태영	전봉석	전형준	정대동	정석윤	정영아	정을호	정종혁	정택동	조경아	조성임
장완익	장향자	전상호	전형준	정대이	정선영	정영옥	정의숙	정주형	정필홍	조경오	조성재
장용동	장현숙	전선녀	전혜경	정동욱	정선옥	정영창	정의진	정준	정하섭	조경현	조성진
장우연	장현철	전성철	전혜원	정만순	정성국	정영택	정익교	정준용	정한수	조경화	조성주
장원홍	장현희	전수영	전홍식	정명호	정성념	정영희	정익기	정지강	정해경	조계숙	조성형
장유림	장혜경	전순림	전희준	정명훈	정성섭	정예지	정인숙	정지선	정현모	조계현	조세진
장유식	장혜정	전승완	정건화	정문식	정성용	정예진	정인숙	정지선	정현미	조관연	조세화
장윤정	장홍근	전영원	정경미	정미선	정성우	정옥희	정인조	정지영	정현숙	조광모	조소정
장윤주	장홍석	전옥경	정경아	정미선	정성일	정완숙	정인택	정지영	정현욱	조광연	조수영
장은미	장훈열	전옥진	정경원	정미셀	정성한	정용선	정일영	정지영	정현태	조규선	조수현
장이규	장희영	전우배	정광선	정미숙	정성희	정용우	정자원	정지영	정형자	조규영	조숙영
장재성	장희욱	전은자	정광숙	정미영	정세균	정용운	정재규	정지영	정혜영	조규주	조숙임
장재익	장희정	전인숙	정광식	정민우	정세영	정용재	정재도	정지원	정호영	조남석	조순동
장재환	전거성	전일교	정광필	정민재	정셀리스	정우용	정재선	정지훈	정환수	조달순	조승연
장정희	전귀정	전재은	정광희	정범성	정수열	정우진	정재승	정진수	정회엽	조동성	조아라
장종우	전금	전정식	정귀우	정병만	정수진	정운봉	정재식	정진순	정효숙	조두현	조연미
장종혁	전금석	전정연	정규호	정병성	정수진	정원모	정재윤	정진영	정효주	조명진	조연옥
장종호	전달래	전조민	정근철	정병호	정순자	정원일	정재익	정진철	정희옥	조명현	조연주
장준근	전대석	전종우	정기욱	정보라	정순혁	정유석	정재정	정진행	정희정	조미정	조영관
장준화	전대우	전지영	정기웅	정보배	정순호	정유진	정재철	정찬용	제미경	조병일	조예진
장지연	전대진	전지은	정기일	정보영	정승우	정윤모	정정훈	정창기	제민준	조봉연	조용건
장진기	전명국	전진	정기재	정삼숙	정연수	정윤미	정제봉	정창남	제윤경	조상민	조용경

조용언	조진현	주은수	차명준	천원주	최봉주	최수안	최옥	최준용	최형열	하재천	한상현
조용진	조창현	주재록	차민경	천장호	최부휴	최수정	최운열	최준혁	최형욱	하재훈	한성규
조용환	조천수	주창호	차병률	천재박	최상순	최승국	최원호	최준혁	최혜선	하정관	한성주
조원봉	조춘원	주형선	차선주	천하람	최상용	최승섭	최웬디	최지미	최혜숙	하주미	한성철
조원필	조태민	주혜경	차성수	천희진	최상원	최승철	최유라	최지선	최혜자	하진규	한소연
조은영	조태진	지관근	차성현	최강락	최상호	최실경	최유선	최지영	최혜정	하창용	한송희
조은주	조태훈	지덕근	차수옥	최경련	최석구	최엔	최유진	최진규	최호열	한건희	한송희
조은하	조현경	지선명	차순덕	최경식	최석순	최연서	최윤규	최진욱	최환규	한경아	한수정
조인성	조현상	지선영	차승현	최경아	최석호	최영	최윤석	최진주	최휘용	한경진	한수현
조재범	조현재	지오	차영준	최광재	최선아	최영수	최은석	최진화	최희천	한경혜	한숙자
조재원	조현희	지정구	차윤호	최국모	최선아	최영숙	최은아	최진희	추노을	한경희	한승재
조재화	조혜련	지정배	차태정	최국식	최선희	최영애	최은영	최진희	탁나영	한광수	한연규
조정민	조혜련	진규엽	차해영	최남춘	최선희	최영주	최은영	최진희	탁석한	한기성	한영미
조정숙	조호상	진명희	차혜란	최대호	최성복	최영주	최은하	최창숙	탁수진	한대상	한영수
조정식	조호수	진수경	차희석	최덕호	최성신	최영준	최의성	최철수	탁현민	한동열	한영순
조정윤	조효진	진수현	채미경	최데이빗	최성원	최영호	최이성	최춘식	팽혜선	한만일	한영희
조정화	조희래	진신정	채미경	최동석	최성종	최영환	최재영	최태림	편정자	한만호	한우정
조정훈	조희정	진안민	채상우	최동식	최성준	최영훈	최재원	최태영	표혜정	한명선	한원식
조정희	종인선	진우삼	채수덕	최문자	최세문	최영희	최재정	최하나	하석	한명자	한윤주
조정희	주낙영	진재선	채영수	최문정	최세영	최옥녀	최정아	최한나	하성자	한명희	한재연
조주연	주다영	진해성	채옥경	최미숙	최세정	최요셉	최정현	최한석	하성주	한미영	한재우
조준우	주다온	진화스님	채준호	최미은	최소연	최용극	최정현	최현미	하수영	한미지	한재은
조준형	주민하	차경천	채효정	최병주	최소영	최용대	최정혜	최현석	하영석	한상국	한정태
조지형	주범수	차국린	천경송	최보경	최수미	최용배	최종철	최현성	하영숙	한상엽	한종호
조지훈	주석주	차다은	천경희	최보순	최수미	최용수	최종호	최현정	하용식	한상원	한준택
조진원	주영애	차명례	천서영	최본	최수아	최용환	최주영	최현주	하은혜	한상철	한지나

한진우	허정도	홍선주	황경아	황윤경	(주)나무공작소	기분좋은 안경원
한창석	허정숙	홍선희	황광석	황은자	(주)돌베개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현장지원팀
한철수	허주형	홍성대	황광연	황은희	(주)디웍스코리아	대한불교조계종 성주사
한평수	허준연	홍성완	황남희	황의훈	(주)모다끄레아	도휘에드가
한현수	허지연	홍성진	황대식	황인숙	(주)물거	똑섬스타약국
한호	허진란	홍순정	황명선	황인철	(주)백도씨	모금전문가학교총동문회
한홍택	허진영	홍승기	황명화	황인희	(주)백두엔지니어링	백제약국
함식	허호	홍쌍리	황미연	황재순	(주)보잉	뱅가즈법률사무소
함오연	허홍열	홍여우	황민령	황재천	(주)삼경전설	법무법인 지평
함은희	현경미	홍영기	황병민	황정옥	(주)삼덕특수아스콘	법무법인 한누리
함재연	현고스님	홍원석	황상훈	황정환	(주)슬로워크	세무법인 청담
함지훈	현사회치	홍윤비	황서현	황정희	(주)에스티시	소셜디벨로퍼 그룹 더함
허민	현상진	홍윤석	황선중	황진선	(주)와이에스	썬랩
허병욱	현승자	홍은영	황성식	황찬수	(주)원원농수산	온정약국
허병철	현승훈	홍인영	황성주	황춘옥	(주)인사이드99	유한회사에이랜드
허성훈	현우택	홍정립	황세원	황혜란	(주)자연인	적정마케팅연구소
허세기	현진호	홍정표	황순구	황효진	(주)진학학원	지역활성화센터
허식	형성철	홍제남	황순복	황희두	(주)카카오	한국에이온휴잇컨설팅
허신용	홍갑선	홍준희,홍순범	황순현	효진	(주)코라드	한국컴퓨터재생센터
허안숙	홍규창	홍지애	황영수		(주)한겨례신문	협동조합 세종애민
허영진	홍남숙	홍지연	황영숙		(주)현대자동차	희망주택건축네트워크
허웅	홍명근	홍태철	황영주		(주)혜성청과	
허윤정	홍명자	홍한솔	황영철		(주)호산유통	
허은영	홍민선	홍현주	황옥란		(주)휴먼소프트웨어	
허의	홍샘	홍혜련	황용운		강동농업협동조합	
허인	홍선경	홍혜숙	황운택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희망제작소 사람들

2022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HOPE * CONNECT

이사회

정지강 이사장
대한기독교서회 명예사장

이규용 이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

윤석인 부이사장
희망제작소 전 소장

이진민 이사
아이소이 최고경영자

권희석 이사
하나투어 수석부회장

이호혁 이사
NHN위투 대표

송창석 이사
(사)가버넌스센터 교육원장

장유식 이사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신근정 이사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동대표

전정환 이사
제주청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유시주 이사
희망제작소 전 소장

심재엽 감사
회계법인 이상 회계사

이소영 감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소장단

임주환 소장 | eyelid@makehope.org 정창기 부소장 | mayday3@makehope.org

이음팀

한상규 팀장 | thomashan@makehope.org 이규리 연구원 | kyouri@makehope.org

유다인 연구원 | yoodain@makehope.org

연구 사업본부

김창민 본부장 | kimcm@makehope.org 이다현 팀장 | mangkkong2@makehope.org

김세진 연구원 | inosj@makehope.org 이은경 연구원 | eklee@makehope.org

이시원 연구원 | lsw@makehope.org

자치분권팀 송정복 팀장 | wolstar@makehope.org

허웅 연구원 | woong@makehope.org

박선하 연구원 | lea@makehope.org

기획팀

박지호 팀장 | jh@makehope.org

홍한솔 연구원 | hansol@makchope.org

오승화 연구원 | uncia@makehope.org

미디어팀

안영삼 팀장 | sam@makehope.org

정보라 연구원 | bbottang@makehope.org

방연주 연구원 | yj@makehope.org

**경영
지원본부**

김홍수 실장 | hsk1999@makehope.org

정혜진 연구원 | jinny@makchope.org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 사회적 저작자: 이선희
시민형여성 | 저작자: 이선희
마이페이지 소통 기어가

▶ 후원회원 신청

02-6395-1415
give@makehope.org

▶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는

-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투탱크 Think & Do Tank 입니다.
 -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 www.makehope.org
 - facebook@hopeinstitute.org
 - 02-3210-0909

지방자치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종합판 출간



이 책에 실린 다양한 혁신사례들은 자치분권 2.0시대에 더욱 꽃을 피우고,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바꾸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순온(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보다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져 지역의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자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김사열(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12년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준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발굴해 정리한 책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100여명과 함께 하는 정책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며, 함께 고민하고 나눴던 혁신성과들을 12개의 소주제로 나눠 정리했다. 각 주제별로는 정책동향과 쟁점들을 정리하여 지방정부의 실험과 혁신 노력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해를 돋는다.

문의 송정복 팀장 | wolstar@makehope.org
박선하 연구원 | lea@makehope.org



세상을 구하는 NGO에 날개를 달다!

NGO를 위해 마음으로 빛어낸
따뜻한 소프트웨어 휴먼소프트웨어!

휴먼소프트웨어는 전산이나 IT영역에서 조금은 취약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업무를 돋고 싶은 진정성과 열정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SINCE 1997. 지속 가능한 가치 있는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25년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더, 더 비영리단체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며 느릴지언정 옳은 길로, 조금은 불편하지만 정직한 길로 가려고 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인	정지강
기획편집	미디어팀 방연주
디자인	미디어팀 정보라
주소	0397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성산동 114-14)
전화	02-3210-0909
팩스	02-3210-0126
메일	hope@makehope.org

www.makehope.org
facebook.com/hopeinstitute
blog.naver.com/hopeinst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활동을 기준으로 구성 및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희망제작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